SW 신원이엔지
대표 김종인
냉·난방 보온전문
냉·난방 공조덕트
파이프케이싱
크린룸덕트
벤치레타·주방후드
각종 FAN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221-2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481호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AI 위기 '심각' 최고단계 격상… 농가 '비상'

살처분 · 매몰 · 이동통제 등 현장 방역 강화 추진

AI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6일자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심각 단계로 격상은 ▲AI가 서해안 지역(경기, 충남북, 전남북) 중심으로 발생 지속 ▲지역간 수평전파(안성-음성) 확인 및 살처분 마리수 증가 ▲야생철새의 도래 확대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현장점검 결과 영남지역 산란계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며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맡고 상황실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되며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 관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과장급이 파견돼 근무한다.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현장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시 · 도 대책본부는 관내 발생 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종괄하고 지원한다.

또한 시 · 군 · 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며 인력과 장비도 지원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이어 발생 시 · 도에 정부 합동 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 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확대 실시, 전국 축산농가(가금 관련 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 관련 농장주들은 소독 · 예찰을 강화하면서 외부인 · 차량 등 농장의 차단방역 철저를,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해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발생 농장 내의 가금류는 H5형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금 · 사료 · 식용란 운반 차량, 닭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농장 방문 조치기간을 당초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대 내에 있는 식용란은 GPS를 부착한 식용란 수집 전용 차량을 지정해 환적장을 통해 반출하도록 하되, 거점 소독 시설에서의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AI를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면서 "가금육 등은 익혀 먹기 때문에 만에 하나 AI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더라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천안지역 AI 방역현장 점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8일 AI 확산 방지와 양계농가 보호를 위해 천안지역 방역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천안축협에서 방역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4회 농촌사회공헌 인증서 수여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선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주관하는 '제4회 농촌사회공헌 인증서 수여식'에서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1팀1촌 자매결연, 봉사활동, 교류 등을 통해 인근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년 처음 시행된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 또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에게 농림부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선정된 우수 기업 · 단체는 금융, 계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수여식에서 선정된 8개 기업 · 단체 중 기업으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농림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당진제철소는 2006년 인근 9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특징이다.

마을 공공시설 신설 및 개보수, 마을회관 건립, 희망의 집수리와 같은 '마을 공통 현안사업'을 지원했으며, 독거노인 생필품, 동계 유류, 하계 방역, 경조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및 계절별 특화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한 농번기에는 임직원들이 모내기, 가을걷이, 과수농가, 농작물 수확 등 일손돕기에 참여한다, 회사 견학, 봄/가을 나들이, 산악회, 체육대회, 경로잔치, 환경정화, 노년층 대상 건강증진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성모의 집' 신축 이전 갈등 전격 해결

제3의 부지 물색 결정… 동구지역 또다시 마찰 우려

대전 무료급식시설 '성모의 집' 신축 이전 추진안을 둘러싼 갈등이 전격 해결됐다.

16일 대전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 '성모의 집' 신축이전 관련 시 특별교부금 예산안(9억7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보문중고와 천주교(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합의한 내용은 우선 보문중고는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복지회)가 성모의 집을 보문중 옆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예산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복지회가 구입한 부지는 보문중고측이 매입키로 했다. 대신 복지회는 성모의 집을 보문중 옆으로 이전하지 않고 제3의 부지를 물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모의 집'은 보문중 옆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또 그동안 '성모의 집' 이전을 두고 지역 불교계와 가톨릭계의 갈등이 일단락 짓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성모의 집을 어디에나 신축이전하느냐는 것이다. 당초 동구에서는 내년 6월 설립기념일에 맞춰 새 건물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지역에 성모의 집 이전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설령 이전 장소를 결정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다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산은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성모의 집을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동구청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이정복 기자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 연내 착공

행복청, 총사업비 408억원 투입 통행 환경 대폭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를 연내 착공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 시공사로 ㈜토광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교차로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사거리 구간의 국도36호선 총연장 2.86㎞를 왕복 4차에서 4~6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전 구간(L=2.86㎞)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개량하는 등 총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하여 통행 환경을 대폭 개선할계획이다.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세종시와 청주시 관문인 조천교 교량(L=130m) 부분은 기존 5차로에서 7차로로 확장 개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원~오송역 연결도로'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36호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되어 인적 · 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양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진 광역도로과장은 "공정 및 품질관리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예산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예산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청원, 민원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illegible]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http://www.counciliyesan.go.kr)
전화(041) 339-7084 FAX(041) 339-7099

대권선언 안희정 지사 충남도정 공백 우려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 "안희정 도정 성적표 녹록지 못해"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청양 · 사진)이 16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해 "210만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5000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 현시점의 6년 반 동안 '안희정 도정 성적표'가 그리 녹록지 못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 지사가 최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으로 바쁘게 강연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청권에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며 "패패감과 상실감에 빠진 도민의 마음을 지사가 더욱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년 반 동안 도정을 이끌었던 성적이 그다지 좋은 점수가 아니다"라며 "도정의 성적표가 바로 안 지사의 대권출마의 성적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002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뜨거운 심장을 보여줬다"면서 "안 지사는 6년 반 동안 도정을 이끌면서 뜨거운 심장을 단 한 번도 도민들로부터 꺼내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또 "많은 잠룡이 현란한 말솜씨로 자기 꽃이 더 크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은 화려한 꽃보다는 속이 꽉 찬 열매를 얻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느 것이 210만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안 지사가 생각해야 한다"며 "현명한 산은 앞산의 그늘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그늘이 있기 때문이다. 지사의 욕심이 도민에게 용기를 줄지, 상처를 안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동구의회, 제224회 정례회 폐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 일정의 제22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동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발단이 된 경노급식소 관련 추경예산안로 인해 발생한 보문중고등학교와 카도릭사회복지회와의 갈등은 불교계와 지역 노인회등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발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전 동구의회 의장 유택호의원은 심각한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양측 대표와 불교계 그리고 노인회 대표등과 협의하여 모두에게 한발씩 양보하는 극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빛난 성과를 이루어냈다.

김정환기자

천안시의회 의원 송년회 개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점심 식사 후, 영화 단체 관람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지난 16일, 2016년 마지막 회기인 제198회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의지를 다지고자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흥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떡케익을 커팅하고 덕담을 주고 받으며 오찬을 함께 하였다.

오찬 후에는 일부 의원들과 직원들이 인근의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로 자리를 옮겨 고희영 감독의 힐링다큐 '시소'를 단체 관람하였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정말 다사다난 했던 2016년, 우리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화합된 힘으로 의정을 원만히 마무리하였다. 다가오는 2017년도 올해처럼 시민의 눈과 귀과 되어 발로 열심히 뛰자"며 축사를 하였다.

당진시의회, 충남도 시 · 군의회 의장단 정례회 개최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충남도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2017년도 운영계획 및 현안사항 등 논의 후 당진항 서부두 현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견학했다. 이날 회의는 당진시의회 주관으로 청양군 이가성 회장을 비롯해 15개 시 · 군의장과 충남도 유병훈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현황을 청취하고 아울러, 시 · 군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및 현안사안 등을 충남도와 시 ·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시의회, 금년회기 마무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16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1건, 동의안 3건, 건의안 5건, 결의안 2건, 선임의 건 1건, 예산안 및 기금안 6건,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 전문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 황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 박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인호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김동섭 의원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사항, 건의요구, 검토사항, 촉구사항 등 5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제시된 개선사항 및 발전적 대안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대전광역시의회는 제7대 의회의 실질적 마무리 해로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도의회 자기성찰 주문

"충남도와 도의회가 상생 발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 지적

충남도의회 김연<사진> 의원이 16일 도의회를 향해 자기성찰을 주문하고 나섰다.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하자는 메시지여서 도의회에 약이될 지 주목된다.

김연 의원은 이날 제292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상생 발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와 시 · 군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약속한 민간보조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발견된 것만 10억원이 넘었다"며 "일부 단체는 지원이 결정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행감과 도정질의 경우 모니터를 통해 많은 도민이 함께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은 질문해놓고도 행정부 답변을 듣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고성까지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네 가지 항목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 중 한 가지만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표정은 주눅든 모습만 보인다"며 "엉켜진 실타래를 풀기 위한 도의회의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특검, 본격 수사 초읽기… 기록 검토 마무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는 한편 강제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현판식을 전후로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입주한 뒤 4개 수사팀을 편성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준비를 해 왔다. ▲최순실 씨 등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미르 · K스포츠재단의 문화 · 체육계 국정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대기업 관련 의혹 등이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검토 마무리 작업과 함께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수사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특검 출범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새롭게 불거진 사안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 측은 "필요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서 봐야 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서 확보한 상자 2개 분량의 진료기록 등도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수차례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 등이 확인됐고,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태선기자

서구의회 '서구정책발전연구회' 세미나 열어

'현 시국에 지방자치 의원이 해야 할 자세' 주제로 토론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최치상) 의원 연구단체 인 '서구정책발전연구회'는 15일 서구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국장를 초빙하여 '현 시국에 지방자치 의원이 해야 할 자세'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서구정책발전연구회 이광복 대표의원, 연구의원으로 윤황식 · 김철권 · 박종배 · 조성호 의원과 최치상 · 이선용 의원 참여했다.

서구정책발전 연구회는 기초의회 발전 연구를 통해 의회 전문성,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분야별 연구로 단순한 지적과 견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서구의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김종천 의원 '대전 스포츠산업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향후 스포츠산업 분야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지향형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끌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스포츠산업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산업을 대전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 낼 전략 창출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천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용품과 장비,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경기 이벤트, 스포츠강습 등 분야가 매우 광범위 하며, 정보통신기술과 관광, 의류, 의료, 교육, 콘텐츠, 문화 등 복합적인 산업의 형태로 발전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포츠진흥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삼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충남대 정문현 교수와 한남대 정일규 교수, 대전시티즌 윤정섭 대표이사, 최재종 대전시 가맹경기단체 전문이사협의회 명예회장, 이동학 대전테크노파크 ICT융합센터장, 최봉식 대전광역시 스포츠마케팅 담당 등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향후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으는 일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에 김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향후 스포츠산업 분야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물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분야 등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등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포츠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환기자

백낙구 의원, 보령 무창포IC~웅천 간 도로 4차선 뚫린다

보령시 숙원 사업… 4차선 확 · 포장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

충남 보령시 숙원 사업인 지방도 606호선(무창포IC~웅천) 도로 4차선 확 · 포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백낙구<사진> 의원(보령2)은 16일 "606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설계비로 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사업비 32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4.7㎞ 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그동안 백 의원은 606호선 도로 확 · 포장의 시급성을 5분 발언 등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보령 일반산업단지가 2018년 완공되면 갑작스러운 차선 축소에 의한 병목현상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백 의원의 핵심 주장이었다. 실제 보령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식료품과 자동차, 기계 등의 제조업 관련 업체 등이 입주, 연간 90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606호선 도로의 경우 2차선에 불과해 연간 23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산업단지 이동 차량 등이 맞물릴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는 도로 확포장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2022년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 16일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백 의원은 "606호선 지방도 확포장은 지역민의 교통 편의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충에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이정복기자

학생 중심 인성교육 · 미래 인재 양성 토대 마련

2016년도 충남도교육청 결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6년 올 한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 증진에 노력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초 · 중등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할 충남형 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가 정착한 한해였고, '자유학기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성과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공문서 감축! 작년 대비 5.1% 감축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도 공문 게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의 적극 활용과 외부 홍보성 공문을 게시로 전환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전년대비 5.1%의 공문서 유통량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는 공문서의 감축과 더불어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기하여 모든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나눔학교 운영

행복나눔학교는 초 · 중등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할 충남형 혁신학교로 2015학년도 21교를 시작으로 현재 39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2018년까지 초 · 중등 전체 학교의 10% 수준(70교 내외)으로 운영할 것이다.

행복나눔학교는 첫째, 학교운영체제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역사회 · 학부모와의 협력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할 계획이며 셋째, 교육과정 ·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교직원 혁신역량 강화 연수 등 행 ·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 구현되도록, 행복나눔학교 성과를 일반화할 계획이다.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으로 신체적 · 정신적 균형발달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은 학교가 교과 및 비교과의 제반 영역에 걸쳐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학부모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운영 체제이다. 학년 초 학생 · 교사 · 학부모가 학생 성장발달 관련 3자 협약을 실시하고 진단-공유-기록-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인지, 정의, 사회, 신체적 4개 영역에서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지난해 10교(초7, 중2, 고1교)의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6학년도에는 15교(초10, 중3, 고2교)의 선도학교 및 2교(초2)의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교육활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선도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의 일반화를 위하여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이렇게 시작해요!' 리플릿을 제작 전체 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학교자체평가 세부지표, 직무연수 등에 반영하여 2017학년도 전체학교에서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은 학교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에 그치지 않고 2017학년도부터 충남 전체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참학력 기반 조성

참학력은 기존의 전통적 학력인 지식 전달과 암기, 시험점수와 서열화 등 다수를 위한 교육 한계를 넘어 자기관리와 문제해결 능력 등 비인지적인 영역까지 아우르고자 하는 전인적인 학력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진로를 찾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참된 배움을 말한다.

참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참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참학력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참학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참학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참학력의 핵심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2017년 주요업무계획, 교육과정, 평가 지침 수립 등에 있어 참학력의 철학과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진로 · 진학교육 지원을 위한 진로 · 진학지원센터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은 소질과 적성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행복한 미래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고교에 배치 · 완료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심으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14개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과 '꿈길' 사이트 데이터 구축, 지역형 진로박람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위한 충청권 대학(17교) 연계 학과 체험(137종 671회 14,000여 명)과 특성화고(37교, 78종), 도청 산하 공공기관 체험(400여 회) 운영은 물론, 체험 인프라가 미흡한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버스 운영(45종 1,200여 명)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160여 교), '찾아가는 진로멘토의 날' 운영(154교, 1,400여 시간), 태안 국립생태원 충남 특화사업 개발 · 운영(43교 2,300여 명) 등 진로교육 균형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연구정보원에 설치된 진로진학부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중심 진학지도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진학 역량강화 연수(7회, 1,385명), 진학상담 협력 체제 구축(협력교 86교), 충남대입 정보공유 밴드 개설(912명),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상담실 운영(11회, 1,354명)과 상설 대학입학 설명회(8회, 3,638명), 단위학교 진학컨설팅(8교), 수시모집 박람회(10,000여 명), 지역 순회 학부모 진로진학토크쇼(13회, 2,878명),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진학 상담실 운영(7회) 등 학생 성장을 지향하는 현장 맞춤형 진로 · 진학교육을 추진하였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학교혁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을 자유학기 실시 이전 학기인 『전환학기』, 『자유학기』, 자유학기 이후의 『연계학기』로 운영하는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중학교 185교 중 1학기 1교, 2학기 184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자체평가표를 개발하여 89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14개 지역으로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 및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규 운영 42개교와 선도학교 간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 교감 · 교장 대상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교와 학교, 마을과 학교, 대학과 학교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온 마을이 함께하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131개의 농어촌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운영하였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실수업 개선 촉진을 위한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지원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수업준비OK」단을 구성하여 10개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수업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수업컨퍼런스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천안 고교 상향 평준화 안정적 정착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서 고교평준화 첫 해인 2016학년도 천안지역 12개 후기고의 배정 대상학생 5,172명 중 1지망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4,972명으로 집계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정책의 수정 · 보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실시한 천안 평준화지역 신입생 및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학교배정 만족 93%,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 95.41%,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의 노력 여부 94.27%, 등교시간 30분 이내 65.5%의 긍정적인 결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천안지역 12개 후기고등학교 및 비선호학교의 교육력을 함께 높여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천안지역 고교상향평준화 2대 핵심과제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 특성화, 특수지 학교의 교육혁신을 통한 명품 진로교육 선도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3대 지원과제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 강화, 원거리 거주학생 통학 여건 개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꿈 키움! 끼 펼침! 장애학생 체육 · 예술교육 운영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애단계별 맞춤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꿈 키움! 끼 펼침! 체육 · 예술교육을 운영하였다.

장애학생 체육 · 예술 교육을 위하여 7개 기관에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성 중심의 체육 ·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6월 대구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어울림축전'에 특수학교(급) 3개팀이 합창, 기악 공연에 참가하여 끼를 마음껏 펼쳤으며, 미술 작품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또한 각종 체육 · 문화행사에서 풍물, 치어리더 등 다양한 축하공연에도 참가하여 장애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5월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0종목 21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32개, 은 34개, 동 24개를 획득하여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9월에 개최한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에 155개교 645명의 장애학생이 참가하여 체육 잠재력과 체력을 증진시켜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의 바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9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금 1개, 동 3개를 획득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체육대회 참가 확대를 통한 기량을 향상시켰으며, 교육청-체육회-기업체가 협업하여 장애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다

◆충남! 도지역 '우수교육청' 선정

교육부의 「2016년 시 · 도교육청 평가」및「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결과 道단위 교육청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다.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책무성 확보,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운용성과 평가는 재정운용 전반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영역별 평가 결과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의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노력, 체육 · 예술교육 및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체제 강화, 진로탐색 · 설계 등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운용성과 평가 결과는 비법정전입금 확보실적과, 자체 투자심사사업의 중앙 투자심사 통과율에서 전국 1위를 획득하였으며,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분야, 학교회계직원 산정 인원 준수율, 불용액 비율, 총액인건비 집행률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전 같은 재난 훈련 상황별 체험중심 안전교육

충청남도교육청은 '생명존중 안전학교 운영'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여 17개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016. 5. 16.~5. 20.)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다양한 체험위주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총 예산 약 146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일반 체험관과 차별화하여 18개의 전시 체험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포함되는 안전교육을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수업전후 조 · 종례 시간, 방과후 활동에 시간을 확보하고 연간 총 51차시의 안전교육을 편성 · 운영하도록 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 '충남안전체험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안전동행」'에 선정되어 학생 안전체험 버스 임차료를 90교 4,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교실형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도 당선되어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구축 할 계획이다.

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생안전지역(스쿨존) 교통안전 민 · 관 · 학 협의회」를 구축하였으며, 학생안전지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조사하여 개선 ·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울타리 안 보 · 차도 분리와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정복 기자

●동 정●●●

교육과정 역량강화 워크숍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9일 오후 5시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열리는 2016년 교육과정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한현택 동구청장= 19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2017나눔캠페인 거리모금행사

박용갑 중구청장= 19일 오후 2시 지하상가 이벤트홀에서 개최되는 '희망2017 나눔캠페인 거리모금 행사'에 참석.

사랑의 백미 기탁식

장종태 서구청장= 19일 오전 9시 30분 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사랑의 백미 기탁식'에 참석.

꿈나무과학멘토 보고회

허태정 유성구청장= 19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꿈나무과학멘토 6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

발굴단 다짐 결의대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19일 오전 11시 법2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법2권역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단 다짐 결의대회에 참석.

대전시티투어, 2016년 이용객 첫 '1만 명' 돌파

중부권 최대 명물로 거듭난다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시티투어가 199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한 해 이용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전시티투어 탑승객은 16일 현재 1만1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티투어 한 해 이용객 1만 번째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에 1만 명째 탑승객의 행운은 경기도 파주에서 온 신종환(24세, 남, 회사원)에게 돌아갔다.

신 씨는 "대전이 교통도 편리하고 시티투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대전을 방문할 때마다 탑승했는데 오늘은 출장차 방문했는데 행운이 돌아왔다. 1만 명 돌파를 축하하고 내년에도 기대가 크다"며 즐거워했다.

1만 번째 탑승객에게는 4인 가족 기준, 30만 원 상당의 1박 2일 호텔 이용권, 창업 60주년을 맞은 대전 대표기업 성심당 상품 쿠폰과 아쿠아월드 이용권 등 50여명에게 제공되었다.

시는 탑승객 1만 명을 자축하고 내년 희망을 심기위해 2016년 굿바이 투어로 오는 12월 31일, 토요일에는 공주, 부여와 계족산 코스 16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운영 17년 만에 한 해 이용객 1만 명이 초과된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남은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객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시 박성룡 관광진흥과장은 "대전 시티투어가 대전을 찾는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중부권 최대 명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는 시티투어의 운영노선을 새롭게 개편하고,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문화유산권역과 청남대와 속리산을 연결한 충북권역과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권 투어를 주말마다 운행하는 등 이용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영호 기자

2016 대전시새마을지도자대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 앞장"

대전시새마을회(회장 한재득)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순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5개구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이웃과 사회에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한 이날 행사는 성과보고, 대회사 및 축사,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한 자녀 더 갖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새마을이야기 영상시청과 정진채 가수의 공연이 있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한재득 대전시새마을회장과 전면규 새마을지도자동구대동협의회장, 유은자 중구부사동새마을부녀회장, 김수희 새마을문고서구변동분회장은 새마을포장을 수상했고. 강전일 새마을지도자유성구협의회장과, 정연희 동구자양동새마을부녀회장, 서명난 대덕구대화동새마을부녀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2명, 대전시장 표창 13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9명, 대전시새마을회장 표창 10명 등 모두 51명이 올해의 새마을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한재득 회장은 대회사에서 "100년뒤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통계청이 충격적 발표를 했다"며. "2030년 인구절벽,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 자녀 더 갖기 국민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의 비전으로 가정새마을운동, 지역사회새마을운동,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공동체 운동' '사회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운동' '환경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송병배 기자

취약계층 안전점검봉사 활동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17일오전 10시 권선택 시장과 시청 시민안전실, 대한산업안전협회, TBN대전교통방송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취약세대 안전점검과 위문물품 전달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금번 취약세대 안전점검, 위문물품 전달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어지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실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모금한 성금 102만 원으로 중구 일원 취약가구 32세대와 노인요양원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에 라면과 과일 등 위문물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지난해 시와 협약을 맺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전기, 가스 등 안전점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전등, 콘센트, 소화기 등 소모품(100여만 원 상당)을 교체해 주었으며, 겨울철 생활안전수칙 및 안전신문고 활용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TBN대전교통방송 직원들이 인근 노인요양원과 장애인시설 등 2곳에서 시설청소, 목욕봉사, 말벗 등의 봉사활동에 동참하였으며 시설생활자들을 위해 과일을 준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은 "연말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情을 나누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매년 취약세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분야

대덕구 2년 연속 최우수 차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대전광역시 주관 '2016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분야'에 대한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자치구간 비교·평가를 통해 구별 업무추진 실태 및 성과에 대한 교류와 시·구의 행정 연계성 강화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해당분야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면평가(1회) 및 현장평가(2회)를 실시한 결과, 대덕구가 2년 연속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특히 살기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참여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공원화장실관리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등은 대덕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박수범 구청장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주민이 한뜻으로 노력해 2년 연속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특수시책을 확대·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관리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市, 전국최초 대학 졸업 예정자 면접비 지원

경제적 부담 줄여… 내년 1월부터 시행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지역 대학졸업예정 미취업자의 취업 및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한편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 채용 면접자에 대하여 면접비를 지원한다.

면접비 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대학별로 수요 조사·모집하고 기업인사담당자의 확인서와 신청서를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과 인원을 대학별로 배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시는 청년인구가 42만 7000여 명으로 많고, 대학수가 19개로 졸업자수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으며, 매년 3만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어 청년실업 원인을 분석하고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민선 6기에 ▲ 행복키움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 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 찾아가는 Good-Job행복드림버스 운영, ▲ 청년희망 릴레이 토크콘서트 ▲ 대전드림 과학인재양성사업,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 손을 job'아, ▲ 전통 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청년 일자리정책을 추진하여, 금년도 2분기와 3분기 청년실업률(8.2%)이 특·광역시 중 전국(9.3%) 최저로 낮았다.

하을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이 아닌 취업 준비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국가지점번호판 57개소 설치

서구, 정확한 위치정보제공 구민 안전 도모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정림동 일원 등 산로 및 하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57개소)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 표시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한글2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 총 10자로 표기한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 하천 등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위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활용하는 방법은 119 신고시 "여기는 <다바 oooo oooo >입니다."라고 신고기관에 사고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로 산, 하천 등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구민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7년 대전 둘레산길 등에도 확대 설치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설치한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자료를 119, 112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산림휴양시설 화재예방 안전점검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겨울철 화재 취약시기를 맞이해 관내 자연휴양림 2개소와 산림욕장 4개소 등 산림휴양·치유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자연휴양림 등에 배치된 소화기, 야외소화전 등 소방시설 ▲ 누전차단기, 배전설비 등 전기시설 ▲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는 장태산·만인산 자연휴양림과 상소동·성북동·장동·보문산 산림욕장이 있으며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겨울철 화재 취약시기를 맞이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화재안전 확보와 질 높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으로 관리비 절감 '톡톡'

유성구, LED 교체 8개 단지 월 300만원 전기요금 절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공용공간 조명을 LED로 교체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공간의 조명을 LED로 바꾼 8개 아파트 단지의 11월분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1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비용으로 단순 환산시 3600만원으로, 이는 8개 단지의 총 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5년, 아파트 자부담 비용 1억 원은 3년 이내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기존 형광등 보다 5배 정도 긴 내구성과 더 밝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절감효과는 더 크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LED 교체사업의 효과가 알려져 사업 신청단지수가 늘고 있다"며,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21개 단지에 LED 교체, CCTV 교체, 보도블럭 교체사업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태선기자

평화의마을 신축 국·시비 20억 원 확보

동구, 아동들 안전한 공간 제공‥ 2017년 말 준공 목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가양동 소재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국·시비 20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시비 확보는 그동안 건축물 내구연수 경과와 함께 벽면균열, 지반침하 등의 문제점을 보였던 평화의 마을이 지난 10월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에 이어 16일 대전시의 해당예산 편성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구는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통해 여러 곳에 관찰이 필요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신청과 함께 대전시에 적극 설명 등 그간 펼쳐왔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화의마을 새 보금자리는 현 시설 소재지 앞마당에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며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한현택 구청장은 "최근 대전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상황 속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가 적극 펼쳐왔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돼 반가운 마음이며, 아동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덕구 순회성금 4199만2786원 모금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대덕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희망2017나눔캠페인' 대덕구 순회성금에서 4199만2786원을 모금했다. 한편 서구 순회성금에서는 1501만9910원을 모금했다.

서산 농특산물 대형 백화점 '입성'

유명 산지를 찾는 상품 발굴 품평회… 서산에서 열려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은 서산 농특산물을 백화점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0여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와 백화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입점을 위한 품평회가 열렸다.

서산 농특산물의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입점을 지원하고 상품화 컨설팅 등을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이 품평회는 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충남도내 최초로 서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한화갤러리아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해 상품개발 방향과 스토리텔링 기획, 상품 표시사항 점검, HACCP인증, 전시 방법 및 포장 디자인 개선 방향 등 판매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했다.

신동혁 부장은 "출품 상품 중 2~3개 품목은 백화점 입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는 디자인 개선 등의 보완이 진행된 후 다시 입점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품평회는 상품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화의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대전우체국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서대전우체국(국장 이계송)은 지난 15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온양온천시장 활성화 위한 청년장사꾼 개소식

호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15일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맛내는 거리에서 청년장사꾼 개소식을 가졌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해 온양온천시장 맛내는 거리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장사꾼은 청년 창업가 및 예비 창업자의 제품홍보 및 마케팅 공간 인프라 마련, 창업기업의 제조 상품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 기회, 온양온천시장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젊은 소비자층의 전통시장 방문 유도 및 전통시장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청년장사꾼을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 만나서 놀고 쉴 수 있는 어울림의 공간 창출로 지역 내 젊은 소비자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켜 축제와 이벤트를 통한 온양온천시장을 문화의 장으로 만들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내 대학,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으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공연, 이벤트 진행으로 전통시장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 우수기업 · 대학HRD협의회 포럼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5일 '2016-3차 우수기업 · 대학 HRD협의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음봉면 소동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발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아산시에서는 음봉면장, 기업협력관, 수출통상정책관, 민원행정관계자, 선문대에서는 산학협력단 관계자 그리고 음봉면 소동리 지역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기업지원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로민원에 대해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며 "앞으로 지역별 기업 민원애로 사항과 병행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경부고속도로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 ex-HUB 준공

수도권 가천대역 동천역에 이은 지방지역 최초 세 번째 ex-HUB구축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16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 진입부에 위치한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시설(ex-HUB) 준공식을 개최했다.

옥천만남의광장 ex-HUB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준공된 가천대역과 동천역 ex-HUB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환승시설이다.

옥천만남의광장 ex-HUB 준공으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옥천터미널을 이용해 시외버스로 환승하는 경우보다 이동거리가 2㎞ 이상 단축돼 연간 6천만 원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의 시내버스 이용도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장했고, 편의점, 커피숍, 의류매장 등 배후의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개장했다. 나아가 미래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고속도로 환승시설에 최초로 접목해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고객과 50여대의 환승차량이 옥천만남의광장 ex-HUB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에서 국민이 행복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까지 ex-HUB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장을 비롯해 옥천군수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송병배기자

새마을금고 젊은 세대 위한 'MG스마트저축알림적금'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종백)는 젊은 세대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할 수 있는 'MG스마트저축알림적금'을 지난 16일 출시했다.

'MG스마트저축알림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이며 고객이 지정한 납입희망일에 MG스마트알림(앱)의 알림(푸시)메시지를 통해 저축할 시점을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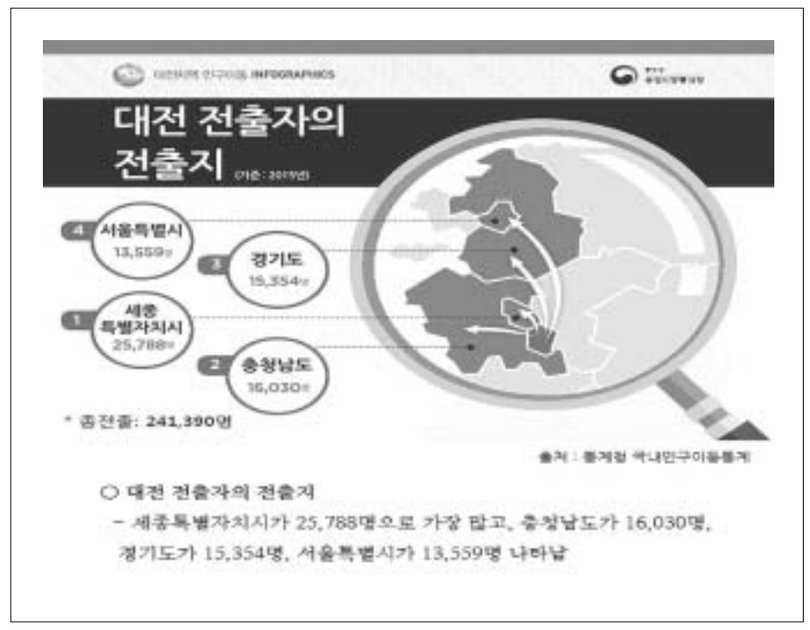
또한, 사회초년생의 자립기반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가입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32세 이하로 제한하고 ▲만기달성 ▲목표설정금액 달성 ▲MG스마트알림 및 스마트뱅킹 가입 ▲스마트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일정 횟수 이상의 적금납부 시 최대 0.4%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품의 가입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최초 1만원 이상으로 저축 한도는 월 100만 원 이내, 총 납부 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다.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고 새마을금고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창구 및 스마트뱅킹(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적금납부일을 알려주는 'MG스마트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알림(푸시)기능을 이용해 예금의 입 · 출금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금융안내, MG체크카드정보, 공제정보 등의 알림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알림서비스로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대전시교육청-충효인성교육 대전교육원

인성교육 및 효교육 발전 한 협약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서 설동호 교육감과 충효인성교육중앙연수원 박상도원장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참석관 최경호 교육국장,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 등 교육청 관계관과 충효대전교육원 남현아원장, 교수회장 이상귀, 연구소장 김상철, 상임연구원 서정복, 상임연구원 이철연, 부원장 권선진 등이 참여하였으며 협약 내용으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 및 효교육 지원에 힘쓴다. ▲인성교육 및 효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양 기관은 인성교육 및 효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 활동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본 협약은 인성교육 및 효교육 발전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환기자

청소년수련시설 일부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성가족부,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총 293개소 대상…안전점검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 86%가 '적정등급' 이상을 받았고, 일부 시설(9개소)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활동 안전강화를 위해 2014년 7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해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고, 올해는 숙박을 하면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종합 안전점검은 정부 3.0 협업가치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들이 '수련시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를 점검했다.

올해 점검대상 293개소 중 287개소가 참여(참여율 98%)하였고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시설(9개소)에서 소방 및 전기, 가스 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조치하고, 개선에 상당한 예산 및 기간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에는 264개소(참여율 90.1%)가 참여했으며,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수련시설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조직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이 86%(227개소), '미흡등급' 이하 시설이 14%(37개소)로 나타났다.

종합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4년 평가 때 보다 참여율이 13.1%p(77%→90.1%) 상승했으며, 개별 수련시설에서 안전한 수련활동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수등급' 이상 시설수도 25개소(180개소→205개소) 증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장관상 수여와 함께 인증동판 게시,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거부 및 미흡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시설관리·운영 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공개한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수련시설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연장 등에 활용하고, 일선학교는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평가결과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개별 시설별 안전등급과 종합평가 등급 뿐 아니라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지적내용도 기재했으며, 특히 평가거부 시설은 '평가거부' 사실을 고지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안전과장은 "이번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일부 시설의 미흡한 점을 빠른 시간 내 개선하여 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일선 학교와 학부모,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전에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도교육청, 후기고 신입생 선발고사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마지막 고입 선발고사가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도내 75개 시험장학교(후기고등학교)에서 1만5655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다고 밝혔다. 그간 후기고등학교의 전형방법으로 치러졌던 고입선발고사는 내년 현재 중 2학생부터 폐지되고 내신성적(교과성적 및 비교과 성적)으로 전형을 하게 된다.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 공통기본교과인 국어, 사회, 영어, 과학, 도덕,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9개 과목, 180문항에 90점 만점으로 실시된다. 또한 이날 2교시 영어듣기 평가시간(10:30~10:40)에는 고사장 주변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요원이 배치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전화, MP3, 전자계산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합격자 발표를 천안지역 평준화고등학교는 내년 1월 5일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비평준화 지역고등학교는 오는 28일 각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내포=전용식기자

아산 친화경에너지단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방문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부상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체제개혁사무부 책임연구원외 2명)이 12월 15일 아산시 친환경에너지단지를 방문했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중국 환경보호부 산하로 설립된 중국 최대의 환경정책 및 환경공정개발 연구기관으로 중국의 대기, 수질, 생태환경 등에 대한 배출표준을 제정하고 환경과 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한·중 환경공동연구사업의 수행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 환경기초시설에서 생산된 주민편익 및 소득사업, 관광시설 설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그동안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영광군 등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서 견학을 오고 있고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돼지분뇨를 활용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및 해외 공무원과 주민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제1기 해외인턴 파견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세계적인 화장품 개발제조업체인 ㈜코스맥스차이나에 해외인턴을 파견한다.

16일 한남대에 따르면 중국경제통상학과는 제1기 해외인턴으로 4학년 김미현, 송주희, 정지운, 강수현 학생 등 4명을 선발해 오는 26일 출국 예정이다. 이 학생들은 내년 1월과 2월 두 달간 코스맥스차이나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해외현장의 실무경험을 익히게 된다.

인턴은 코스맥스차이나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숙소에서 생활하고 일정 급여를 받게 되며, 학교에서도 해외인턴 장학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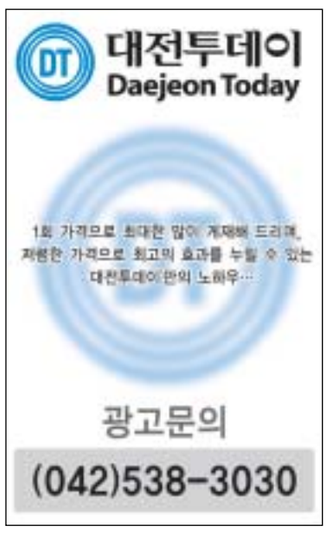
코스맥스차이나는 세계 1위의 화장품 ODM(원천개발제조방식) 회사로서 기초, 색조 제품 등 연간 2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ODM은 OEM(주문자상표제조방식)과 달리 제조자가 제품의 개발 및 품질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한남대 이덕훈 총장은 이에 앞서 9월 중국경제통상학과 오대원 학과장, 정상은 교수 등과 함께 코스맥스차이나를 방문해 학생 인턴십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통상학과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직원 선발과 똑같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해외인턴 4명을 선발했다.

제1기 인턴으로 뽑힌 김미현 학생은 "첫번째 해외인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와 학과의 명예를 높이고,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총장은 16일 해외인턴 학생 4명을 총장실로 초대해 격려하고, "해외 인턴십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해외취업 및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 감사패 받아

주민화합 및 복지향상에 노력한 공로 인정 받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은 지난 15일 유천현대2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조재철 의원은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주민화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수여 받게 되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건강도시 포럼 성료

건강도시로 도약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이 가장 중요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1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공무원, 건강도시 서포터즈 위원, 시민 건강지도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남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당진시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교육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 건강도시의 기반이 되는 건강증진사업과 건강도시 사업 연계에 대한 시민 역량 교육으로 '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평택대학교 배서현 교수의 교육이 있었다.

2부 포럼은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기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병의원 환경분야의 건강도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자유 토론으로 당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문정숙, 금연환경조성사업단 송수영님이 참여해 건강도시사업 조성을 위한 시민 입장에서 본 당진시의 금연환경, 생활 속 운동 실천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폴리텍대, 듀얼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간담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 산학협력처는 15일, 온양제일호텔(다이아몬드홀)에서 듀얼공동훈련센터 제 3차 협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썬패치테크노 외 43개 협약기업의 담당자 및 학습근로자들 80명이 참석했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정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3.0」의 핵심가치로 듀얼공동훈련센터는 2016년도 일학습병행제 참여하는 기업 및 훈련실시 학습근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과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16년 훈련실시 기업 중에서 우수업체(㈜앙클, ㈜화신코리아, ㈜선경이엔아이)를 선정하여 표창을 진행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김인규 산학협력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업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도에는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전담자들의 적극지원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협약기업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행사를 통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업무의 소통이 더욱더 원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의 운영에 있어 협약기업들의 업무협조와 전담자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덕대학교 모델과 기말발표회 패션쇼 '성료' 대덕대학교(총장 김상인) 모델학과가 12월 14일 오후 6시 교내 워킹실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 13회 기말 발표회 패션쇼를 열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사랑나눔 성금전달식' 개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회장 안경남)는 지난 16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3층 오크룸에서 '2016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자체 성금과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지원금 등을 합해 총550만원을 전달했다.

무역협회 기업협의회가 마련한 성금 전액은 사회복지 아동 양육시설인 '구세군대전혜생원', 성폭력 피해 여성 청소년 지원시설인 '나는봄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재활기관인 '이주여성쉼터'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경남 회장은 "이번 행사는 기업, 협의회, 대전시 등이 연합해 기획한 행사로 지역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 신임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지난 16일(금) 오전 10시 대전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16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서천소방서, 겨울철 소방시설업 대표자 간담회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천소방서 소회의실에서 대원전기 등 5개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아산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 교육 지난 15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79개소의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능력배양 및 초기 소화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교육청,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실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천안을 비롯한 8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갖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진일 자산공사 대전충남본부장, 사회지도층 특별한 보훈공감 이진일 한국자산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왼쪽)은 지난 15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 오른쪽)이 추진하는 '사회지도층의 특별한 보훈공감'에서 6·25한국전쟁 중 참전한 김병선 국가유공자(대전시선화동거주)가입원해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발전소 유치찬반 시민들 혼란만 키운다

국가사무 법적 실효 全無, 지역 분열 조장 우려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당진에코파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놓고, 법정·비법정 논란이 제기돼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대위는 '당진에코파워 유치찬반'이 자치사무인 '발전소 특별지원금 중 가산금 요청에 대한 찬반'이라며, 법정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진에코파워㈜는 지역주민, 당진시의 사업유치 동의에 따라 ▲2010년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2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관련부서 협의완료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

또한, 지난 14일 시의원과 시관계자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당진에코파워는 건설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주도하는 비법정 주민투표는 서명 없이 바로 선거에 돌입하면 되지만 범대위는 현재 선관위에 발의하는 법정 주민투표를 목적으로 1만 1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후원의 밤을 개최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소 유치나 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는 국가사무로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투표결과가 건설저지나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 분열만 조장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범대위가 자치사무라고 주장하는 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되는 재량행위이며,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주민 서명을 받을 때도 '당진에코파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아닌 자치사무인 '가산금 신청을 위한 건설요청 찬반'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동부경찰서, 보험금 노린 위장강도 피의자 검거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종범)는 '16. 12. 12. 19:24경 대전 동구 중앙로 소재 ○○금은방에 망치를 들고 침입 여종업원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1㎏ 골드바 1개, 10돈 골드바 1개, 5돈 골드바 1개 등 시가 4900만원 상당 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금은방 사장과 친구이며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후에 보험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것으로 알려 졌다.

범행동기는 금은방 사장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의 경비업체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박봉관기자

인플루엔자 환자 수 급증…아동·청소년 주의해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50주) 38℃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당 34.8명으로 49주(11월 27일~12월 3일) 13.3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107.8명으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8.9명으로, 질본은 지난 8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돼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등 9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저 질환이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격리치료는 권고하고 있지 않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손소독제 비치 등 학교 내 전파차단을 위해 교육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험실 감시를 통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총 86건으로 모두 A(H3N2)형이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생후 12~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는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보건소), 6~12개월 미만 소아(민간의료기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2~59개월 소아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하고 있으므로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등)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광우병 '이상 무'

올해 도내 도축장 및 의심축 신고 농장 소 714마리 검사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신창호)는 올해 도내 도축장 및 의심축 신고 농장 소 714마리에 대한 '해면상뇌증(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소 해면상뇌증의 주요 감염원인은 BSE병원체에 오염된 동물성 단백질(육골분) 섭취에 의해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 광우병이나 프리온성 질병으로 불리고 있다.

이 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 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5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불안, 보행 장애, 기립 불능, 전신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다 100% 폐사하게 된다.

그동안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기립불능 등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인 3마리와 정상 출하 711마리 등 모두 714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BSE 신속검사 숙련도 평가에 합격하며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바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해면상뇌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 남은 음식물사료와 돼지나 닭 사료를 소에 절대 공급해서는 안되며,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해에도 1107마리를 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

김정한기자

논산소방서, 춥고, 미끄럽고…'겨울철 산행' 안전 최우선

등산객의 조난과 낙상사고 방지 위해 각별한 주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겨울철 산을 찾는 등산객의 조난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산행은 계절적으로 해가 빨리 지는데다 눈이 쌓였을 경우 하산하는데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심하여 수시로 날씨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홀로 등반 중 실족, 추락사고가 나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구조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저체온증까지 쉽게 올 수 있어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저체온증은 정상 체온인 375도에서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체온이 떨어질수록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 기능이 느려지고 28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속에서는 고도가 100m씩 올라갈수록 0.5~1도의 기온이 낮아지고, 초속 1m 바람은 체감온도를 2도가량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겨울철 산행에 앞서 추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겨울철 산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되도록 나 홀로 등반을 피하고, 산길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산행 중 갑작스럽게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 아이젠과 스틱 등을 사전에 챙겨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바지 안으로 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스패츠, 발 토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산행 전 안전장구 착용, 휴대폰 배터리 확인, 산행 중 산악위치표지판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대전교도소, 소방안전 교육 실시

남부소방서 김종민 소방위 초빙… 화재예방 등

대전교도소(소장 김천수)는 15일(목) 오후 5시 직원교육실에서 대전남부소방서 김종민 소방위를 초빙하여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화재사고가 빈번한 동절기를 맞아, 전국 최대 수용시설인 대전교도소에서 화재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전남부소방서와의 연계협조로 실시되었다.

김 소방위는 화재의 위험성·주요원인, 소방장비 사용법, 초동진압법 등을 교육하며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특히 초동진압 및 유독가스에 대한 대처요령을 강조하며 실제 상황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김천수 소장은 "대전교도소는 수시·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훈련 및 매분기 합동훈련(대전남부소방서)을 통해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교육으로 전 직원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대전남부소방서와 김종민 소방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세종메디컬 센터 기공 명품의료단지 조성

본격적인 명품 의료메카 단지 조성의 닻 올려

세종시의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세종메디컬 센터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세종시 대평동 현장에서 BOK건설주식회사 이규순 대표와 나덕환 대원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건설관계자, 의료인, 주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의료메카 단지 조성의 닻을 올렸다.

기공식에서 이규순 대표는 세종메디컬센터의 건립은 턱없이 부족한 세종시의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세종시 발전과 시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 시설로서 세종메디컬 센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75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4,392.39㎡(4,353.69평) 규모로 건립되어 오는 2018년 5월 준공예정인 세종메디컬 센터는 세종시 생활의 중심지역인 3-1생활권에 위치해 최고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세종메디컬 센터는 1층과 2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추고 나머진 3층에서 6층까지는 의료시설을 갖추어 세종시의 부족한 병의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의료종합센터로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세종메디컬 센터는 앞으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이 세종시 최대 규모로 입점하게 되며 BOK건설주식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대원부동산중개법인(주) 대원창업투자와 함께 임대케어를 해주어 공실걱정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지도 만들기, 참샘초 최우수상

세종소방서, 119소년단 안전지도 만들기 시상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가 주관한 '119소년단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에서, 참샘초등학교 119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작은 도담초교 라온팀과 나래초교 안전지킴이팀이 선정됐다. 세종소방서는 16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119소년단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 초등학교 119소년단 학생들이 마을의 위험·안전요인을 안전지도로 제작해, 지역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지도를 제작했다.

참샘초등학교 119팀은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안전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연말성과평가 방식, 마음에 들지 않아"

<인쿠르트> 직장인 53%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말을 맞이하는 직장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대하는 직장인'과 ' 고뇌하는 직장인'. 그 이유는 다름아닌 연말성과 이슈 때문. KPI(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내년도 연봉협상에 청신호가 켜질 수도있고,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기에 직장인들에게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연말성과평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업포탈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작년 인크루트 회원 53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연말성과평가 잔혹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의 성과측정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업무에 임한다'라도 답한 응답자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 '대체로 만족한다'가 13%, '매우 불만족스러워 기회만 되면 이의를 제기하곤 했다'가 8%의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회사에서 연말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인의 53%가 연말성과평가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직장인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1%로, 이들 가운데 30%는 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12월에 1차례'라고 답해 성과평가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말이 아니라면 성과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14%)'되거나 '연중 수시로 실시(10%)'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연간 KPI 달성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KPI가 별도로 셋팅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70~100% 달성'이라는 답변이 15%로 가장 많았고, '50~70% 달성'이 10%, '100% 초과달성'이 8%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목표 KPI를 반 이상 달성했지만, '10% 미만 달성'이라는 답변도 6%나 되어 할당된 목표를 채우지 못한 아쉬움도 나타난다.

연말을 맞이하여 보너스를 기대하는 직장인과 성과평가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는 직장인 사이의 '희비'가 엇갈릴 터. 응답자의 46%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연봉협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반면,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와 '연말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은 별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2%와 21%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연말성과평가 시즌을 앞둔 직장인의 심리상태는 어떠할까?

응답자의 26%는 '매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스스로 잘했다고 본다'라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두렵다, 연중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는 답변이 13%를 차지해 성과측정 결과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당당하다, 내년도 연봉협상이 기대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3%를 기록해 열심히 실적을 낸 직장인들은 성과측정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설문 응답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규모로는 '소기업(종업원 수 300명 미만)'이 61%로 가장 많았고, '중기업(종업원 수 300명 이상 999명 이하)'과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 각각 14%와 12%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김대선 팀장은 "연말성과평가는 평가방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택하여 불만을 줄이고, 직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면 모두가 연말을 'Happy Ending'으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문 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다문화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도교육청, 2017년 다문화교육의 효율적인 지원 방향 등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다문화교육지원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다문화교육지원단은 지난 6월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 및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지원단은 단위학교의 다문화교육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방향 안내, 다문화정책학교 컨설팅,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추진 사업 평가 및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다문화이해교육 및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의 특강이 있었으며, 올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업 평가와 내년 다문화교육의 효율적인 지원 방향과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 펼쳐졌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은 "모든 교원과 학생이 다문화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를 만들고,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보령 청보초, 의평1리 노인 회관 봉사활동 실시 지난 15일 오후3시 5~6학년 학생 17명과 참가 희망 교육가족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효 실천 의평1리 노인 회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참가 학생과 교육가족은 간단히 준비해간 다과를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작은 재롱잔치를 열었다.

논산고, 개교 이래 최초 서울대 합격생 탄생

서울대 수학교육과 합격 송하진 군

201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논산고등학교(교장 조익수)에 개교 이래 최초로 서울대 합격생(송하진 · 18 · 사진)이 탄생했다. 2015학년도 조기졸업(최찬양,17)으로 KAIST 합격생을 배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 합격생도 배출하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송하진 군은 수능시험 국어, 영어, 수학, 생명과학 4개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기염을 토했다. 송 군은 학교 친구나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두텁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친구나 후배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친절히 가르쳐주는 더불어 사는 인성을 가진 학생이다.

논산고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익수 교장이 2014년 공모 교장으로 부임하여 교사들에게 수업 혁신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한 진로진학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운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신명식 3학년 부장교사가 3년간 담임 및 학년 부장을 맡아 학생들을 밀착 지도한 것 역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한 몫 했다. 서울대에 합격한 송 군은 1학년 때부터 담임-부장-교감-교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학교의 미래창조(SKY)반으로 편성되어 학업과 생활 지도를 받았으며, 학교에서 개설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력을 갈고 닦았다.

논산=김태선기자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 - 서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ROY'

'청소년 정책교류 간담회' 진행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은 오는 12월 17일(토)에 서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ROY'(서산문화복지센터)와 정책 교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교류 간담회는 아산시와 서산시의 특색에 대해 소개하고, 그 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청소년정책 및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된다. 교류회의를 통해 아산시와 서산시의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smartyou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제3회 청렴 학습의 날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45개교 행정실장과 주무관 70여명 대상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지난 15일 홍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청렴 학습의 날 연수를 개최했다.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45개교 행정실장과 주무관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2017년도 학교 예산의 청렴한 집행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골든벨대회, 홍보담당자 연수로 실시됐다.

청렴한 공직생활을 강조한 골든벨대회는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퀴즈와 단답식, 객관식 등의 문제로 진행됐다.

관계자는 "청렴 골든벨 대회를 계기로 교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청렴도 인식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홍성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최하였다"며 "관내 학교 업무지원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 학습의 날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전용식기자

대전시교육청, 수학교육 '전국 최고'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학교사상에 대전글꽃초 김정주 교사, 대전가오중 장소영 교사, 충남고등학교 박정현 교사 등 총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수학교사상은 전국 초 · 중 · 고 전체 수학교사 중 단 10명을 선정하였다. 시도별 수상 현황을 볼 때 서울 1명, 경북 1명, 인천 2명, 경기 3명, 대전 3명으로 입상비율로 볼 때 최다배출이라는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작년에도 동일 수상에서 3명이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3명씩 총 6명 배출이라는 우수한 결실을 맺어 한층 높아진 대전 교사들의 위상이 입증되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선정하여 발굴, 포상하여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수학 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활동과 탐구 중심의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실현에 공헌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수학수업개선실천사례, 수학평가 실천 사례, 외부 소통 사례 등의 실적에 중점을 두었다.

김정환기자

매봉초, 대전종합복지관에 독거어르신 난방비 지원 성금 전달 대전매봉초등학교(교장 강가석)는 지난 16일 아이들이 추운겨울 독거어르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모은 후원금 116만8780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전종합사회복지관(www.childfund-daejeon.or.kr 관장 유 미)에 전달했다.

2017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순천향대,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1:1 상담 진행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상담부스를 찾는 수험생들에게 정시모집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생들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면서 지난해 정시모집 결과를 토대로 지원학과에 대한 예측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인현고의 남모 여학생은 "화장품 산업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이 분야에서 필요한 화학과를 공부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와 합격가능 여부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 부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서현민 입학사정관은 "수험생 대부분이 급한마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없이 지원학과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점수만을 가지고 대학의 합격가능성 여부만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험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진로는 물론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과 및 교차지원, 유사전공의 학과를 지원하는 방법 등 폭 넓은 상담으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상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교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 발표회

세종시교육청 주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100여명 모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교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공모에서 추천된 사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 3편, 우수 3편, 장려 42편에 대한 시상식과 최우수 3편, 우수 3편의 사례발표회로 진행됐다. 이날 최우수 사례를 발표한 인천 명현초는 『업무보다 아름다운 교사들의 참살이 교육을 위한 여정』에서 학교업무를 분석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환영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것에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수학습 중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동 정●●●

2016 송년 기자회견

안희정 충남도지사=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송년 기자회견에 참석.

교육공동체 힐링 콘서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9일 오후 3시 20분 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희망·감동·소통을 주제로 관객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팝페라 가수 박정소를 초청해 열리는 교육공동체 힐링 콘서트에 참석.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는 15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 해단식 및 제3회 장애인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역대 최고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해단식과 올 한해 세종시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에는 장애인 선수단 및 가족, 세종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이춘희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 이태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승복 부교육감 및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심재훈 선수를 비롯한 8명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에는 시장상 2명, 국회의원상 1명, 의장상 1명, 교육감상 2명, 체육회장상 6명 및 감사패 2명에게 전달하였다.

시장상에는 펜싱 심재훈 선수, 본회 이동길 서비스팀장, 국회의원상에는 제6101부대 이민우 대위, 의장상에는 두루고등학교 박정민 교사, 교육감상에는 연양초등학교 이혜정 교사 및 도담중학교 김가은 교사, 회장상에는 펜싱 박상민 감독, 당구 김화자 선수, 역도 장철춘 코치, 농구 김동민 선수, 세종빌 이병은 사무국장, 본회 오페라 직원이 수상하였으며, 감사패는 세종라이온스클럽 김완기 회장 및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사장에게 전달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획득점수 8,749점을 기록하여 전년 대회 6,581점보다 2,168점 향상된 성적을 기록, 당초 예상했던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17개 시·도가 추천한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는 등 값진 대회로 마무리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올 한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선수단에게 훈련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2016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인증 마을 3곳 선정

주민 중심 수거관리 체계 정착

충남도가 서천 마량어촌계와 보령 장고도어촌계, 서산 중왕어촌계 등 3곳을 '2016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인증 마을로 선정했다.

당진시 가곡어촌계와 보령시 호도어촌계, 홍성군 상황어촌계, 태안군 신온마검포어촌계, 신야2리어촌계 등 5곳은 시군 우수마을에 선정됐다.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 내가' 사업은 지난해 9월 마련한 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인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처음 실시해 올해 2년차를 맞았다.

이 사업은 어촌 주민이 스스로 항포구나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 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 29곳에서 48곳으로 확대 추진됐다.

참여 마을은 폐그물과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어선 생활 쓰레기, 부유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간이집하장·선상집하장 관리, 무단투기 감시, 수시 어촌 정화활동 등을 실시했다.

우수 인증마을은 사업 참여 적극성과 실효성,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조, 육상처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시·군 자체 평가와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여한 2차 도 평가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인증 마을로 선정된 3곳에 대서는 5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우수마을에는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마을을 주민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체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업인 스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전국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015년 인증마을로 선정된 보령 고대도와 서산 웅도, 서천 송림어촌계에 인증기 및 해당 마을에 환경개선 사업용 장비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김정한 기자

충남도, 전국 대표 혁신사례로 꼽힌 '행정혁신'

워크 스마트 포럼서 '일하는 방식 혁신, 충남의 일하는 법' 소개

충남도의 행정혁신이 전국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대표 사례로 꼽혔다.

도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서 열린 '제7회 워크 스마트 포럼'에서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행정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워크 스마트 포럼은 공공 부문과 민간이 한 자리에 모여 '직원의 창의성'과 '공유경제', '공유 혁신' 등을 주제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행사다.

'조직의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기업과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전자 C랩과 드라마앤컴퍼니, 충남도가 각각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포럼에서 '소통과 학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충남의 일하는 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IPTV 및 무기명 메신저 채팅을 활용한 전 직원 월례모임, 무기명 토론방, 소통과 협업에 적합한 사무 공간 재구성 등 수평적 소통 문화, 독서대학, 혁신대학, 충남혁신포럼 등 창의적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의 일하는 방식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공유경제의 선두에 서 있는 에어비엔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지원한 협업사례는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워크 스마트 포럼에서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발표를 가진 것은 충남도의 행정혁신이 전국 대표 혁신사례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 행정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정부3.0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처음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정한 기자

아쿠아포닉스 무환수 친환경 양식 성공

충남도 수산연구소, 치커리·방울토마토 등 20종 식물 재배

충남도 수산연구소(소장 성낙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올해 국내 수산연구기관 최초로 시도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양식시험'에서 무환수 친환경 양식에 성공했다.

아쿠아포닉스 양식은 수산업의 양식 시스템과 농업의 수경재배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물고기가 배출하는 유기물을 양분으로 삼아 식물을 기르는 4계절 소득창출형 양식 모델이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금붕어 등 2종의 어류와 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등 20종의 식물을 재배하는 2층 목재형 비닐하우스 아쿠아포닉스(50㎡)를 자체개발해 지난 5월 실험에 착수했다.

시험 결과 양식어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암모니아성 질소가 재배식물에 의해 약 14% 제거(중화)돼 수질이 안정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어류의 성장은 일반 양식에 비해 약 5배 증가했고 상추, 치커리 등 쌈채소류도 1주일에 1회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식용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인 락토바실루스(Lactobacillus sp.)를 투여해 시험한 결과 수질이 더욱 안정화 되어 유산균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류 및 식물이 더욱 빠른 성장을 보였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동자개,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성 고밀도 양식시험과 인삼 등 수경식물 재배를 통한 경제성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등 아쿠아포닉스 양식 시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건립이 추진되는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에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설치해 오는 2018년부터는 도내 어업인 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봉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내수면 양식은 최근 원가상승과 홍수 출하에 따른 어가하락, 양식시스템 노후로 인한 사육공간 활동도 저하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4계절 주말 농장형 신양식산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개소식

여성회관 2층 리모델링, 카페·공연·동아리방 등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일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문화 동아리 축제인 '조치원 아우름 마당'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지원을 받아 기존의 여성회관 2층과 3층 767㎡ 공간을 리모델링, 이번 생활문화센터를 마련했다.

센터 2층은 마주치는 공간인 아우름 마당, 카페 '달콤', 어울림 소리방 등 동아리 방 5개실로 조성됐다.

3층은 전통무용, 댄스, 연극 등의 동아리 활동공간인 '튼튼한 방' 음식문화 관련 동아리 활동 공간인 '맛있는 방'과 야외 활동공간인 '하늘뜨락'이 들어섰다.

이번 문화센터 조성은 2015년 3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총 50회의 모임을 통해 디자인과 공간계획을 스스로 결정했다.

또 시설 운영을 위해 자치 운영 규약을 제정하는 등 주민자율형 생활문화센터로 운영된다.

세종=김정환기자

2016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시군 평가

홍성군 최우수상 수상

홍성군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전년대비 체납액의 증감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로 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됨은 물론 행정력을 대·내외로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내수경기 침체 및 대외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2016년도 지방세 징수 1천억원을 돌파하며 그에 따른 체납액도 누증하는 추세에 있지만, 과년도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징수율 190% 달성하고 공매실적과 번호판영치실적 등의 성과가 수상의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열의가 중요했다는 평이다.

군은 연이은 수상을 계기로 내년도에도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징수 최우수상 수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준 높은 납세의식으로부터 나온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군민께 돌리고, 앞으로도 지방세정에 대한 군민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 좋은 납세 편의시책과 친절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성=전용식 기자

충남 서산시 중리마을

전국 최고 어촌마을 선정

바지락 캐기, 감태체험으로 유명한 충남 서산시 중리마을이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마을에 선정됐다.

도는 14~15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회 본선에서는 서산 중리마을을 비롯해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6개 마을과 전국 대표 어촌체험마을 7곳이 '전국 최고 어촌체험마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서산 중리마을은 지난 2014년 어촌체험마을에 지정돼 바지락 캐기, 감태체험, 감자 캐기, 개막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분기까지 7만 명이 방문해 총 2억여 원의 관광소득을 올렸다.

도는 전국 최고 어촌마을에 선정된 서산 중리마을을 비롯한 전국 어촌마을을 우수사례를 공유해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국제안전도시 추진 보고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16일 오후 세종실(시청 본관 5층)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보건자살, 도로교통, 범죄, 가정·학교, 재난재해 등 5개 안전분과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안전총괄과장의 총괄 보고를 비롯 이재은 안전도시위원장의 제1기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성과, 5개 분과위원장들의 분야별 안전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춘희 시장 주재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성과와 실천 계획,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심사위원인 조준필 아주대학교 교수와, 배정이 인제대학교 교수는 세종시의 안전도시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범죄취약지역 시설·환경개선 등 132개 안전증진사업를 펼치고 있다.

이 안전증진사업에는 세종시청, 교육청, 경찰서 LH세종본부 등 52개 유관(기관), 13개의 안전 관련 단체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7년 7월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공인 실사를 거쳐 2018년 1월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홍성군, 기침·콧물·인후통 등 주증상 나타나

홍성군 보건소(소장 조용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발생하는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은 발생 연령이 주로 2세미만이며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나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잠복기는 보통 4~5일 정도이며 기침, 콧물, 인후통, 가래, 코막힘 등의 주증상이 나타난다.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은 주로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 시 나오는 분비물 등을 통하여 감염되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쉽게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마스크 쓰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등) 지키기,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을 시 눈, 코, 입을 자주 만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2세미만 소아의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지 않고 감기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피하며 장남감과 이불을 자주 세척하고, 유아용 젖꼭지, 식기, 칫솔, 수건 등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위생수칙준수가 필요하며 의심증상이 있을시 병원치료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전용식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해풍 맞고 자란 당진 '속새' 출하

당진시, 2005년부터 특용재배, 전국 생산량의 약 30% 차지

당진시 대호지면 일대에서 겨울철 식욕을 돋우는 쓈바귀의 일종인 '속새' 출하가 시작됐다.

대호지 쓈바귀는 야생에서 자라던 것을 지난 2005년부터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되면서 현재는 110여 농가에서 연간 약 3만5000여kg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칼슘이 풍부한 당진황토에서 갯바람을 맞으며 자라 영양분이 많고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대호지 쓈바귀는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제44-0000307호)되면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다.

센터 관계자는 "대호지 쓈바귀의 품질이 인정을 받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호지 쓈바귀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대호지면에서 주로 생산되는 쓈바귀와 달래, 냉이 등 들나물류의 체계적인 선별과 관리, 공동세척을 위해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대호지경제종합센터 내에 들나물복합센터를 건축할 계획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대호지면 농업인들의 주소득 작물인 들나물에 대한 경쟁력이 한층 강화 돼 고령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김홍장 당진시장=19일 오후 2시 당진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에 참석.

주간업무계획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19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보고회를 주재.

청양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청양군은 지난 15일 청양문예회관에서 원예작물 및 쌀 생산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GAP인증제도의 이해와 인증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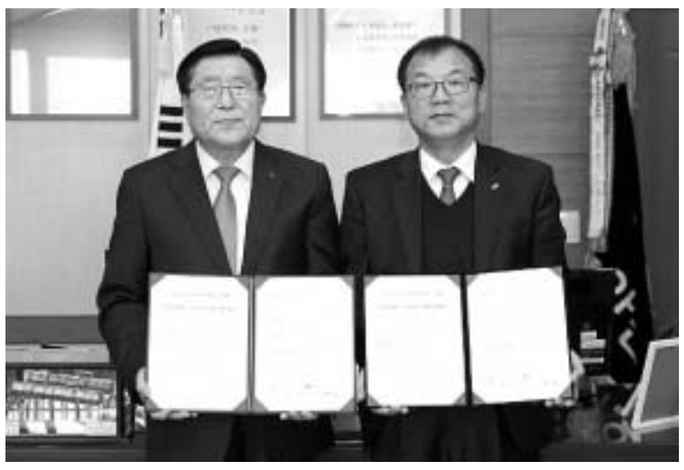
이에 군은 GAP 기본 교육 미이수로 인증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실시 된 이날 교육은 (사)대한민국GAP연합회 김재영 강사가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과 인증절차 간소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청양=정상범 기자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손잡고 농업용수 개선

저수지·담수지 등 농어촌용수 수질보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태안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이현구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 공동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처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주요 농업용수원인 저수지 및 담수지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태안군과 협조체제를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특히 태안군 관문에 위치한 인평저수지의 경우 1938년 조성 이래 78년이 경과한데다 총 수혜면적이 202.9ha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수질개선 사업을 통한 청정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태안군은 농어촌용수원 유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등 유입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용수원의 수혜자인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농어촌용수를 확보·공급하는 한편, 농어촌용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가까운 시기에 최적의 개선공법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이어 태안군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확보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업 및 농어촌의 가치 증진 및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해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찬 당진사람 제7호 당진시민오케스트라 선정

올해 마지막 당찬 당진사람은 개인 아닌 42명의 단체

지난 4월 창단 당시 2008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베토벤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당진시민오케스트라가 올해 마지막이자 제7호 당찬 당진사람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당찬사람들 중 개인이 아닌 단체의 단원 전체가 당찬 사람들로 꼽힌 건 당진시민오케스트라가 처음이다.

당진시민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전공자부터 음악을 사랑한다는 열정으로 단원의 꿈을 키워온 아마추어까지 모두 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부와 교사, 다문화가족, 회사원, 자영업자, 의사 등 저마다 다른 직업,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루는 악기도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등 다양하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똘똘 뭉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

전문가로 불릴 정도의 실력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당당히 공개경쟁 오디션을 통과할 만큼 실력파인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다시 음악을 시작하며 자신들이 느꼈던 행복이 당진 시민들에게 퍼져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고 행복한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창단 후 연습 4개월여 만에 선보였던 생활문화예술제 오프닝 공연에 이은 이들의 두 번째 공식무대이자 첫 창단연주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당진=최근수 기자

청양읍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청양군 청양읍(읍장 김종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6일까지 관내 경로당 47개소에 대해 동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설·혹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등의 분야로 실시됐다.

특히 겨울철 경로당에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보일러 등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뤄졌고 소화기 작동법, 재난발생시 대피요령 안내 등의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김종섭 청양읍장은 "동절기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선 시설점검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어르신을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열려

지난 15일, 한국치매예방충남본부(대표 정남용)와 농어촌미래연구소가 합동으로 아산시와 천안시 지역 어르신 중 문화예술 소외지역 어르신들 200여분을 초청 '예술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곡·민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온양온천역사 2층 까르르스타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1부는 한국치매예방충남본부 주관으로 싼타 잔치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부는 농어촌 미래연구소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실시됐다. 공연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노래에 맞추어 박수를 치고 노래도 함께하는 등 무대와 객석이 함께하는 신나는 공연무대를 연출했다.

정남용 대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연을 우리지역에 더 많이 유치해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아산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한국치매예방충남본부가 아산지역으로 적극 유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영인면, 연말 후원물품 전달 아산시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김영숙)이 지난 14일 관내 어려운 가정에 상품권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영인면 소재 업체에서 후원한 휴지 30박스, 한우곰탕 40개, 라면 20박스와행복키움추진단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상품권을 준비해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했다.

한상기 태안군수 현장행정 눈길

공직자들 독거노인 가구에 연탄 500장 배달 봉사활동 나서

한상기 태안군수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직접 연탄배달을 하는 현장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기 군수는 지난 17일 '태안군 공무원 자원봉사동우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남면의 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연탄 500장을 직접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민선6기 들어 추진 중인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한상기 군수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날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연탄봉사자들을 맞이한 독거노인 홍모 씨는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연탄을 전해주셔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상기 군수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생활쓰레기 배출 교육

아산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 대상 실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2월 2일 영인면 구성1리를 시작으로 농한기를 맞아 읍·면·동 각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순회교육은 아산시지속가능협의회 환경강사가 '우리동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길라잡이' 홍보물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처리요령,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어르신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큰 글씨와 그림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판을 제작 경로당에 설치했다.

김영환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불법 소각 금지 및 종량제봉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시행

천안시, 개성 드러내는 다채로운 디자인 건물번호판이 거리를 수놓 전망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개성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거리를 수놓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을 15일부터 실시한다.

건물번호판은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하는 안내판이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규칙에 따라 남색의 규격화된 표준형과 정해진 규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자율형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허용하지만 아직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전국 6800개로, 전체 대비 약 0.1%에 불과하고 대부분 남색의 규격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절차 개선의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 추진과 병행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확대될 경우 도로명 주소 정착과 함께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한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공모전의 총 상금은 2000만원으로, 주거분야와 비주거분야로 나눠 각각 12명, 총 24명을 선정해 분야별로 각각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각100만원), 장려상 8명(상장)에게 행정자치부장관 상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접수된 작품은 시 · 도별 1차 심사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 내년 4월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과는 별도로 현재 설치돼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는 시 · 도로부터 추천받아 총 17명(대상1명,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10명)을 선정해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시상한다.

천안=김정환기자

중앙부처 방문 발품 행정 펼쳐

최홍묵 계룡시장, 국토교통부 방문…교통망 확충 건의

최홍묵 계룡시장이 시정 주요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쳤다.

최시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2020년 계룡 세계 軍문화엑스포 개최 및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계룡 신도안 ~대전 세동 광역도로개설 사업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계룡~신탄진 구간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2,060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논산시 연산면 송정리까지 8.5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두마~연산)건설공사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요구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계룡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룡시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신도안~세동간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한 밀목재 도로의 위험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시간 단축 및 주민통행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장교합동 임관식, 국군의 날 행사, 계룡軍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세계軍문화엑스포(예정) 등 주요 행사 시 극심한 교통 체증 해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룡시 교통망 확충사업이 조기에 개설되고 서대전 IC~계룡과선교 간 도로확장사업(대전시)이 개설(2021년 준공 예정)되면 계룡시가 국토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서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상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허위 · 미끼 매물 광고, 가격 상승 유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불법중개 행위여부, 고용인 신고여부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수영 토지관리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실시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김치냉장고 등 경품 지급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용자와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식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경품으로는 1등 김치냉장고, 2등 계룡사랑상품권 50만원 등 총 125명(구매자 96, 가맹점 29)에게 다양한 경품이 지급되며, 계룡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경품을 상품권 위주로 구성했다.

시는 개인별 경품권의 우편발송과 함께 이날 경품추점 결과를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 행사와 할인 가맹점을 확대하여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지역경제과(042-840-2502)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희망2017 나눔캠페인 열려

15일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슬로건으로 순회모금 실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서천군이 후원하는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순회 모금행사가 15일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렸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순회모금 행사에는 관내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갖고 나와 희망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여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특히, 서천군 기획사업으로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회장 박창석)에 스타렉스 1대,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조순희)에 냉동탑차 1대가 지원되어 소중한 성금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영광스런 순간을 가졌다.

또한 판교면 대종개발(주)(대표임대순)에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의 많은 군민, 단체, 기업들의 성금모금이 줄을 이었다.

노박래 군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성금모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더 큰 나눔,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며 성금모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나눔활동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희망 나눔캠페인 모금행사는 15일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에 이어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항읍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희망2017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서천 =김태선기자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

부여군,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우수시설 선정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이 지난 15일 서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청소년활동 우수참여자 초청행사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2016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를 운영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과 참여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에 의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여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올해 93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련활동 사전신고를 실시해 전문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했다.

한편 수련원은 지난 2015년에도 23개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인증 받아 운영하여 최우수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여 =이정복기자

논산시청소년이여 콘서트로 스트레스 팍팍 날려라

관내 중 · 고등학생, 한자리 모여 학업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 희망콘서트에서 학업스트레스 훌훌 털어라!!"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22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2016 청소년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의 노고 격려와 관내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관내 27개 중?고등학교 8,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기정상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EXID', 인기래퍼 '치타', '옴므' 등의 화려한 무대로 펼쳐진다.

또, 청소년동아리의 상큼한 공연도 예정돼 있어 청소년들의 열정과 함성으로 논산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개최한 '청소년 타운홀미팅'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방탄소년단의 공연으로 기획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성도 지르며, 인기정상의 아이돌 공연 등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선도지자체 최종선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부여군(이용우 군수)은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뉴-베이비붐 공모사업'에 응모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선정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조성 및 시스템 등을 구축?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부여군이 최종 선발된 5곳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0월말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부여군은 출산 · 육아 · 보육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센터 내에 배치되는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출산), 공동육아방(보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 등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번 가족행복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인구증가의 추진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5개 분야 32개 사업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등 지원조례 개정,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생아 · 노인 등 복지 및 다문화 토탈케어서비스 지원, 정주환경 조성, 귀농 · 귀촌인 지원 등 현실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여 =이정복기자

동 정

복합개발 기공식

구본영 천안시장=19일 오후 3시 30분 동남구청 복합개발 기공식에 참석.

나눔 캠페인 행사

최홍묵 계룡시장=19일, 오후 2시 계룡시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희망2017 나눔 캠페인 행사 참석.

수료식

노박래 서천군수=19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10시 서천초등학교에서 열리는 2016 서천군 청소년 안전 골든벨에 참석하며 이어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2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서천특화시장에서 열리는 2016 서천특화시장 동아리 발표회 및 수료식에 참석.

간부회의

이용우 부여군수=19일 오전8시30분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논산시 지방교부세 산정 · 운영설명회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예산업무 및 지방교부세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영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논산시청 이영태 재정지원팀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날 교육은 지자체 최대 재원인 교부세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능력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시는 2016년 2,18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재정 운영방안과 지방교부세 제도를 큰 틀로 지방재정의 당면 현안과 건전재정 운영방안, 지방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 감액제도 등 실무에 대해 경험과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의 교부세는 일반회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시의 주요 세입원으로 논산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부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이길구기자

동 정

제24회 보령시청소년가요제

김동일 보령시장 = 19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 현안보고, 오전 11시 보령축협에서 열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고회, 오후 2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4회 보령시청소년가요제, 오후 6시 30분 세영뷔페에서 열리는 2016 보령 축구인의 밤 참석.

경로당 · 마을회관준공식

이완섭 서산시장= 19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서산시 예비군 육성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감사패를 전수, 오전 11시 30분 고북면 장요3리 경로당 ·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오후 3시 30분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현대위아 차량 기증식에 참석.

보령 천북 굴축제 25일까지 개막

보령 천북 굴축제가 지난 16일 오전 장은리 굴단지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굴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천북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전병익)가 주최하는 '제15회 천북 굴축제'는 16일 오전 개막식, 굴밥퍼포먼스, 초청가수 축하공연, 관광객 노래자랑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고, 오는 24일과 25일에도 오후 1시부터 품바공연, 초청가수 및 관광객 노래자랑으로 굴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북 장은리 굴 단지는 예전부터 굴 구이로 유명한 곳으로 한해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겨울철 최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굴 구이를 비롯해 굴 밥, 굴 칼국수, 굴 찜, 굴 회무침 등 다양한 굴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보령의 8미 중 하나이며,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다. 또 철분 이외의 구리도 함유돼 있어 빈혈에 좋고,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압 저하에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굴에 함유돼 있는 아연은 성장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고, 글리코겐은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스태미나 증진에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구이용 굴은 플라스틱 한 대야(약 10kg)에 3만원, 굴밥은 1만원, 굴 칼국수는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4인 가족이 굴 구이(또는 굴 찜)와 굴밥(또는 굴 칼국수)을 먹으면 5~6만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보령 =김태선기자

역사 · 문화 살린 관광기념품 개발

서산시, 최종보고회 개최… "내년 중국관광객 유치시 사용 전망"

서산지역 역사와 문화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이 곧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최종 보고회를 개최 후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서산의 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려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전략적 마케팅을 펼쳐나가기 위해 3,500만원을 들여 관광기념품 개발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계부서 실 · 과장을 비롯해 건국대 박억철 교수와 용역업체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렴된 디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제작되는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해미읍성 ▲버드랜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마애삼존불 ▲시 통합 브랜드 및 해누리 · 해나리 캐릭터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관광품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 주까지 개발을 완료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백제시대 유서 깊은 역사 · 문화와 서산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담은 관광기념품이 곧 개발된다."며 "개발된 관광기념품은 국내 관광객은 물론 내년 국제여객선 취항 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내년도 풍수해보험 본인부담률 대폭 낮춘다

보령시, 예산 추가 확보해 개인부담률 41%서 최대 76%까지 낮춰

보령시가 재난발생 시,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 시민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선진 안전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9월 경주 지진과 11월 보령 내륙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피해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보령시도 이에 발맞춰 개인부담률을 낮추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의 올해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2104명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최대 59%를 지원받았고, 개인부담률은 41%였으나, 내년도에는 최대 92.4%로 개인 부담률은 전체 금액의 7.6%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입 시, 보험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기준 개인부담액인 4만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7600원까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고, 보령시 안전재난과와 주소지별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동부 ·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 NH농협 손해보험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며, 피해발생시, 복구기준의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보령=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16 금산자치종합대학 1081명 수료

평생학습 배움터 자리매김

군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금산자치종합대학 수료식이 지난 15일 금산다락원에서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수료생,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수료식은 5개 대학 21개 강좌에 총 1,08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과정별 대표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21명에 대한 상장수여 그리고 금산자치종합대학 발전 유공자 3명에 대한 외부기관의 공로상 및 표창장 수여, 1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본 행사 후 진행된 학습발표회에서는 전통음악과정 관현악 프론티어, 한방건강관리과정 밴드체조, 중국어회화과정 합창 등 5개 대학 13개 과정의 수료생들이 한 해 동안 공연, 영상, 사례발표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서로의 졸업을 축하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층 로비에서는 화훼기능사, 귀금속가공, 천연염색과정의 졸업생들이 지난 1년간 배움을 통해 만든 졸업 작품을 전시하였고, 커피 바리스타 과정은 시음행사를 열어 다락원에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동철 군수는 축사를 통해 "금산자치종합대학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 이라며 "다가오는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수료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배움의 수혜에서 지역으로의 환원이라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금산자치종합대학은 2007년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뒤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누적 수료생은 총 8,236명이다.

금산=전정만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여성의 능력개발 · 사회참여확대

여성창의문화센터 새단장

금산군은 지난 15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창의문화센터를 새단장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동철 군수, 이상헌 군의장과 여성단체, 교육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평화관악단의 관현악 연주를 시작으로 기념식, 테이프컷팅, 축하 케익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창의문화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배움방, 나눔방, 모둠방, 세미나실, 작품전시실, 쉼터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여성의 직업훈련, 취 · 창업 교육은 물론 작품전시, 북카페, 여성소모임,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박동철 군수는"여성 직업훈련, 취 · 창업 교육 확대로 여성 취업지원에 힘쓰겠다"며 "모든 주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서산-광주행 고속버스 운행 개시

요금은 19300원, 하루에 3번 왕복 운행

지난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에서 광주를 오가는 고속버스가 운행한다.

그간 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타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나 각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시는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당진에서 광주로 가는 기존의 노선을 연장해 서산에서 당진시를 경유하고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전망된다.

서산~광주행 고속버스는 오전 9시 55분을 시작으로 오후 2시 15분, 오후 6시 25분까지 하루에 3번 왕복 운행된며. 요금은 19,300원이며 도착까지는 3시간 5분가량 소요된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천해수욕장 스케이트장 개장

관광객들겨울 낭만 선사 · ·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

보령시가 국민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지화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추진한 야외 스케이트장을 16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내년 2월 12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개장식은 오후 3시이며, 아산시 빙상경기연맹 피겨 시범, 경관조성 트리 점등식, 대천해수욕장 상징 조형물(머돌이, 머순이) 제막식도 병행해 다양한 볼거리까지 선사할 계획이다.

스케이트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8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단, 스케이트와 헬멧의 장비대여료는 2시간당 20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세자녀 이상 가정은 50% 감면, 70세 이상 보령시민은 무료이다.

시설 규모는 약 1500㎡로 최대 300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하며, 휴게실, 대여실 등의 편의 공간도 갖췄다.

서산=김정한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美를 더하다.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2 난방비 절약 (Economizing)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황토방)이 바로 이 전통 가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때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갖춘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같이 동파와 고장도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전통적인 美 (Traditional)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
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와의 전통성과, 구조재로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감,
그리고 흙 내음이 우리나라 전통 향수와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美를 더한
Modern Traditional Houses
"현대 전통 가옥"

Best Plan
010.7472.4972
pjmin1456@hanmail.net

BEST PLAN. 대표. 박 정 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54-6번지 2층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50분)

세은(김소혜)은 면식(선우재덕)에게 여태까지 느꼈던 감정들을 토로하고, 덕상(이정길)은 세은이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덕상은 한길(최상훈)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지만 한길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세은은 혜자(오미연)를 찾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경고하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00분)

인경(윤아정)은 의식불명에 빠진 수지(유지연)곁을 밤새 지키고, 민우(노영학)는 전전긍긍하며 수지의 동태를 살핀다. 사고 직전에 수지가 민우와 다퉜단 사실을 안 인경은 민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한편, 민우는 희애와 병실을 찾아가는데...

▲ 사랑은 방울방울 (SBS 오후 7시55분)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오 회장이 초대한 한 박사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채린은 우혁에게 첫눈에 반하고, 자신의 남자로 만들겠다 결심한다. 한편, 우혁과 방울은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악연으로 첫 만남이 시작되는데...

케이블 명화

▲ 아바타 (OCN 오후 10시00분)

가까운 미래,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나먼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판도라의 독성을 지닌 대기로 인해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인류는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Na' vi)'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

원격 조종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편,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샘 워딩튼)'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 받아 판도라에 위치한 인간 주둔 기지로 향한다. 그 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제이크'는 자원 채굴을 막으려는 '나비(Na' vi)'의 무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임무 수행 중 '나비(Na' vi)'의 여전사 '네이티리(조샐다나)'를 만난 '제이크'는 그녀와 함께 다채로운 모험을 경험하면서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되고, '나비(Na' vi)'들과 하나가 되어간다.

▲ 박수건달 (채널CGV 오전 11시00분)

건달로 사느냐, 무당으로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수건달>은 건달과 무당 사이에 선 한 남자의 딜레마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보스에게 신임받고 부하 조직원들에게 존경 받으며 건달 인생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광호(박신양). 하지만 조직 내 세력다툼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한 뒤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다. 결국 살기 위해 낮에는 신빨 날리는 신참 무당으로, 밤이면 수트빨 날리는 엘리트 건달이라는 투잡맨이 된 광호의 일상은 점점 꼬여간다.

보스에게 신임 받고, 동생들에게 사랑 받는 엘리트 건달 광호(박신양). 남 부러울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그의 건달 인생에 '그분'이 태클을 걸었다?!

호시탐탐 광호를 밟을 기회만 노리던 태주(김정태)의 칼에 맞고 순식간에 바뀐 운명선 때문에

낮에는 박수무당, 밤에는 건달의 투잡족이 되어버린 광호! 하지만 존경하는 보스 가라사대, 쪽 팔리면 건달 아니라 안카나!

하루아침에 부산을 휘어잡는 건달에서 조선 팔도 최고 '신빨' 날리는 박수무당되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2:40 유에프오
4:40 숙희
6:20 노아(2014)
8:50 리졸리&아일스시즌5
13:10 메이즈 러너
15:30 국제시장
18:20 아바타
21:50 아메리칸스나이퍼

◈ 채널 CGV
5:00 콜로니:지구 최후의 날
6:40 조선미녀삼총사
8:40 과속스캔들
11:00 박수건달
13:50 127시간
16:00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
17:50 트랜스포터: 리퓰드
19:40 미션 임파서블
22:00 와일드

◈ Mnet
5: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7:00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생활
8:00 양남자쇼
9:00 프로듀스101
11:00 싱스트리트
12:00 갓세븐의 하드캐리
13:0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00 골든 탬버린
15:30 양남자쇼
16:30 Daily Music Talk (SMS)
17:20 M COUNTDOWN
19:00 골든 탬버린
20:30 Live on M(SMS)
21:30 양남자쇼
22:30 갓세븐의 하드캐리

스포츠 · 레져

◈ MBC 스포츠플러스
10:30 2016 NFL
13:30 KO명승부
14:00 ROAD FC 035 하이라이트
16:00 2015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18:00 <다이나믹 복싱> 제36회 KBI 전국 생활복싱대회
20:00 2016 카스포인트 어워즈
22:00 <당구스페셜> 2016 보르도 3쿠션세계선수권대회 16강

◈ SBS 스포츠
10:04 ISU 쇼트트랙월드컵 3차
11:55 16-17 EPL 다이제스트
12:54 2016-17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14:55 16-17 V리그 남자부 SET OF THE MATCH
16:58 주간배구
17:58 2016 ISU 피겨 그랑프리파이널 주니어 하이라이트
19:52 16-17 EPL 하이라이트
20:57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 온스타일
7:30 진구의 선물
8:25 천년째 연애중
9:40 NEW 매력티비
9:55 런드리데이
11:00 립스틱 프린스
12:05 [멋진여자 이효리]이효리의 소셜클럽 골든12
14:50 NEW 겟잇뷰티 2016
15:55 런드리데이
17:00 립스틱 프린스
18: 05 NEW 매력티비
35 NEW 겟잇뷰티 2016
19:45 런드리데이
20:55 tvN 안투라지
23:50 립스틱 프린스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프리미엄 와일드>변덕스러운 동물들 3부 새끼들의 반란
12:00 새끼 곰들의 성장기
13:00 <와일드 인도네시아> 1부 파푸아의 잃어버린 세계
14:00 <와일드 인도네시아> 2부 포식자의 섬
15:00 <와일드 인도네시아> 3부 용의 후예들
16:00 TV 동물농장
18:30 <프리미엄 와일드>변덕스러운 동물들 3부 새끼들의 반란
19:30 <세계 테마 기행>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험기 3부-4부

음악 · 애니

◈ MBC 뮤직
7:30 Good Morning MBC MUSIC
8:50 2016 멜론뮤직 어워드 비하인드
10:40 복면가왕
12:30 형돈이와 대준이의 히트제조기
13:30 주간아이돌
14:30 쇼 음악중심
15:4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7:05 MBC MUSIC HIT SONGS

◈ 애니맥스
7:00 포켓몬스터 XY&Z part2
8:00 애슬론 또봇2
9:20 갤럭시 키즈
10:20 소피루비
11:20 코코몽
12:00 안녕! 과학개발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헬로카봇4
15:00 애슬론 또봇2
16:2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7:00 파워배틀 와치카 시즌2
18: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 JEI 재능방송
6:00 로보카 폴리 시즌3
7: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8: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0기
9:00 역사를 바꾼 별난 Zoo
9:30 소피루비
10:00 뽀롱뽀롱 뽀로로6
11:00 딩동 아이손
12:00 밥상머리 인문학 맛있다
13:00 프리즘스톤-올스타셀렉션
14: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5:00 합체팽이 인피니티 나도
16:00 넥소나이츠
17:00 애슬론 또봇2
18:00 헬로 카봇4
19:00 터닝메카드W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 스페셜 11:55 감성애니 하루 12:00 KBS뉴스 12 1:00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 1:05 KBS네트워크특선 빈싱의 전설 1:55 숨터 내가사랑한 문화유산 2:00 나눔경영쇼 사장님이 미쳤어요 3:00 감성애니 하루 3:05 특집다큐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 3:55 튼튼생활체조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 (수화방송)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7:00 KBS 뉴스 7 7:35 우리말 겨루기 8:25 빛나라 은수 9:0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저하늘에 태양이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우리집에 사는 남자 1:00 1대 100 2:00 KBS뉴스타임 2:10 사람과 사람들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 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VJ특공대 6:00 KBS뉴스타임 6:20 2TV생생정보 7:50 다시, 첫사랑 8:20 글로벌 24 8:55 제보자들 10:00 화랑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6:00 MBC뉴스투데이 7:50 언제나 봄날 8:30 생방송 오늘아침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MBC정오뉴스 12:20 통일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00 키즈 사이언스 6 3:00 MBC뉴스 3:10 똑?똑! 키즈스쿨 3:55 내친구 마카다 4:25 황금주머니 5:00 MBC이브닝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행복을 주는 사람 7:55 MBC뉴스데스크 8:55 황금주머니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불야성 11:10 MBC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미래 인간 AI	9 6 3	6:00 모닝와이드 8:30 아임 쏘리 강남구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45 SBS 생활경제 11:0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 하셨어요? 12:00 SBS 12뉴스 12:50 씬스틸러 드라마 전쟁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0 3시, 뉴스브리핑 4:30 송년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5: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5:30 SBS 뉴스퍼레이드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사랑은 방울방울 8:00 SBS8뉴스 8:55 송년특집 생활의 달인 10:00 닝만닥터 김사부 11:10 씬스틸러 드라마전쟁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5 대한늬우스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8:00 섹션뉴스 8: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9:00 시크릿 캐슬 10:00 빅데이터 세상을 말한다 10:30 톡톡 남도쿡방 11:00 다이어트 미 11:30 다큐희망 12:00 굿뉴스 12:45 대한늬우스 1:00 CMB 집중토론 '변화하는 입시제도 우리의 전략은?' 2:30 문학의 향기 3:00 굿뉴스 3: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4:0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4:30 건강 365 5:00 빅데이터 세상을 말한다 5:30 톡톡 남도쿡방 6:00 뉴스와이드 6:45 대한늬우스 7:00 드라마 동화 2분의 1 8:00 다이어트 미 8:30 건강365 9:00 뉴스와이드 10:00 CMB 집중토론 '변화하는 입시제도 우리의 전략은?' 11:30 산이 좋아 물이 좋아	6:10 EBS 특별기획 통찰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7:30 로보카 폴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멀 9:30 원더볼즈 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 e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빵빵 요리버스 17:05 딩동댕 유치원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X파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작품발표회 '예술로 물들다'

<겨울잠말고, 놀이>展

지역주민 및 이용회원 500명 참석…다채로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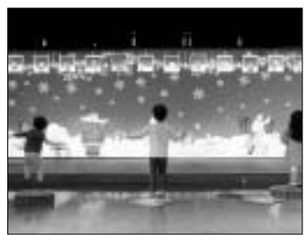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세융)은 지난 15일, 아산시청 3층 시민홀에서 지역주민 및 이용회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작품발표회 '예술로 물들다'를 진행했다.

본 발표회는 평생교육프로그램 15개 반(기공체조, 음악, 무용, 한국무용, 통기타, 하모니카, 에어로빅, 사물놀이, 민요, 댄스스포츠, 청춘합창, 오카리나, 우쿨렐레, 아코디언, 모듬북)이 한 해 동안의 배움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는 행사이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반장 및 강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김요성 강사, 김수현 강사, 황익돈 반장, 김소웅 반장)과 함께 인사말과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져 지난 1년의 배움과 열정의 시간들을 더욱 의미있게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세융 관장은 "한 해 동안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늘날의 노년세대에게 필요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 · 배움 문화정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갤러리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전을 개최한다.

<겨울잠, 말고. 놀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문학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 온 창작그룹 '리즈닝미디어(reasoning media)'의 작품들로 꾸며지는 기획전시로서,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포함해 관객들이 직접 작품에 참여해 신나게 뛰고, 조종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형태의 미디어 설치 작품 15여점이 2017년 1월 13일 ~ 2월 5일(24일간) 전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 속에 들어가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눈사람으로 변신해 보고, 눈싸움을 하듯 친구와 공 맞추기 게임이나 VR 공게임을 하면서 내기도 할 수 있다.

색깔 큐브를 굴리면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보고, 나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들로 장식한 오늘 이순간의 추억 상자도 꾸밀 수 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방안에만 웅크리고 있기 쉬운 계절이지만 전시장 안에서 만큼은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 거리들이 가득하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추위를 잊고 굳어져 있던 몸과 생각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것이다.

송병배기자

현빈 · 유해진 '공조', 예측불가 브로맨스 스틸 공개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수사라는 참신한 소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수사라는 참신한 소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공조>가 예측불가 남남 케미로 시선을 사로잡는 현빈과 유해진의 브로맨스 스틸을 공개했다.[감독 김성훈 | 제작 ㈜JK필름 | 공동제작 CJ엔터테인먼트/영화사 이창 / ㈜HB 엔터테인먼트 |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 최초의 공조수사가 시작되고,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특수부대 북한형사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형사의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그린 영화. 현빈, 유해진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공조>가 그들의 남다른 브로맨스를 엿볼 수 있는 스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북한형사 '림철령'과 남한형사 '강진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두 형사의 남남 케미스트리가 빚어내는 유쾌한 웃음을 예고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먼저 공화국의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남한으로 파견된 북한형사와 그의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남한형사가 각자의 목적을 숨긴 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은 한 팀으로 엮인 두 남자의 미묘한 신경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기대를 높인다.

이어 각자 한 쪽 손에 찬 수갑 때문에 의도치 않게 좁은 조수석에서 밀착하게 된 두 남자의 눈빛 교환이 담긴 스틸은 보는 이들까지 숨죽이게 하는 어색한 분위기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전한다.

여기에 완벽한 수트핏을 보여주는 북한형사와 편안한 스타일로 친근함을 자아내는 남한형사의 모습은 어우러지지 않는 극과 극 캐릭터를 보여준다.

또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 한 쪽 손에 야구배트를 들고 있는 남한형사와 날 선 눈빛을 보여주는 북한형사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현빈과 유해진의 다채로운 브로맨스 스틸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영화 <공조>는 2017년 1월, 상반된 매력의 남북한 형사들이 전하는 유쾌한 웃음과 에너지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1호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제작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주말체험활동 에버랜드 놀이동산 체험
세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백기) 부설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월 17일 '2016년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송강동 청솔아파트 주민,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감사의 마음 전달
유성구 송강동 청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6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산초, 충남 우수 명예경찰소년단 선정 서산초 명예경찰소년단은 2016년 충남지역 우수단으로 선정. 지도교사와 소년단장이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전국 초,중 교가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서산초가 그간의 활동 성과를 평가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표창을 수상 했다.

당진 송산면주민자치위, 사랑의 쌀 · 떡국 떡 나눔 행사 지난 16일 사랑의 쌀 700kg과 떡국 떡 300kg을 관내 21개 경로당 어르신들과 각 마을의 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송산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영리더어린이집 저금통 성금 기탁 유성구 영리더어린이집(원장 허은숙) 원생 60여명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고사리손으로 모은 저금통 성금 49만 1980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에 기탁했다.

대전충남병무청, 신탄진고에서 병무행정 설명회 열어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지난 16일 신탄진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원단 40여명 국립산청호국원, 거제 포로수용소, 진주성 견학

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현장견학

당진시 재향군인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임원들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연수 및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친목애국명예의 기초로 이루어진 단체로서의 역할과 업무를 새롭게 재무장 하는 취지로 산청 호국원을 참배하고 6.25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제도 포로소용소와 임진왜란 전란속의 상처와 국난극복, 호국의지를 드높였던 진주성을 관람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정권 집단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국내의 안정되지 못한 틈을 타 남남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갖가지 책동이 있을것이라 판단하고, 향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안보 최후보루로서 주어진 임무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안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손순원 회장은 "2017년도 안보사업에서는 기록보다, 안보의 생활화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보다 내실 있는 안보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라 말하고, 안보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중부도시가스, 이웃사랑 성금 전달

, 충청남도 방문…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성금 5천만원 전달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지난 15일,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김병표 대표이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눔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전달한 성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지역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웃돕기 성금과 사랑의 도시락 배달, 김장김치 나눔, 연탄나눔 및 지역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한 재능나눔 과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 외국인 학생 한국음식체험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16일 양향자 푸드 & 코디 아카데미(서울 신사동 소재)에서 외국인 유학생 20여명과 교환학생 20여명 등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6개 대학 중 한밭대와 선문대가 함께 참여했으며,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타 대학 유학생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문화체험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불고기덮밥, 잡채 등을 함께 만들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한국 음식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복기자

이 달의 우수 산학연협력 전문가 포상

건양대학교 장윤승 교수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장윤승<사진> 의공학부 교수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선정하는 <이 달의 우수 산학연협력 전문가>로 선정돼 지난 14일 서울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산학연 희망플러스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건양대 장윤승 교수는 ㈜세라테크와의 '차량용 LED 발모치료기 개발'이라는 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제품화 1건, 특허등록 1건의 기술적 성과는 물론, 과제관련 매출과 고용창출 등의 사업화 성공 및 사회적 성과를 배출한 실적을 인정받아 '바이오 · 의료분야'의 산학연협력전문가로 선정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지구 송경자 총재는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7층에서 2016-2017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장을 비롯한 수상자 및 가족, 라이온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지수(관평초 6년) 학생을 비롯한 16명이 수상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대회로 356-B(대전)지구에서는 매년 이를 발전적으로개최해 오고있다.

김정환기자

온양고 총동문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지난 14일 온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중휘)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온양3동 주민센터에 흑미 50포(1포 4kg)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새의자

제64대 장창우 당진경찰서장 취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

장 창 우 당진경찰서장(55세)이 지난 15일 취 임 식 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창우 당진경찰서장은 "서해안 시대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당진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질서 확립을 통해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며,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당진경찰이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찰활동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와 불의에는 강하고, 위험에 빠진 시민은 따듯하게 보살펴 주는 당진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창우 서장은 대전청 생활질서계장, 서울수서서 생활안전과장, 서울강남서 청문감사관, 서울노원서 정보과장, 서울중랑서 정보보안과장, 서울수서서 정보보안과장, 서울송파서 정보과장, 대전청 경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제 64대 당진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대 이정우 교수 '보건의료산업학회' 차기 회장피선

대전대학교는 의료경영학과 이정우<사진> 교수가 지난달 부산대학교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산업학회 제 4차 정기총회'에서 제 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우 교수는 병원경영 분야에 있어 실무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로 평가 받고 있는 인물로써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NYU에서 행정학 및 의료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경원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약 20년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획팀장 등 실무자로 근무한 이 교수는 지난 2003년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2008년부터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재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대전대 혜화 의료원의 경영실장으로도 보직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 교수가 오는 2017년부터 2년간 이끌어 나가게 될 보건의료산업학회는 병원을 비롯하여 의료서비스 조직의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지식 등을 교류하는 곳으로 과학적 ·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학자들의 모임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병원경영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발전 중에 있다"며 "병원경영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건의료산업학회 뿐 아니라 한국병원경영학회 미래기획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실용학문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계속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인 사

■ 한국조폐공사
▲기획처장 한귀욱

■알 림

▲ 2016 벧엘의집 "송년의밤"=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부 기념식 2부 노숙인들이 참여하는 마당극 프로그램인 "보석같은 남자들"의 사물놀이와 민요공연, 직원 및 생활인들의 특송, 마당극 패우금치 특별공연, 풍물대동한마당 3부 송년 맞이 레크리에이션이 별별극장 우금치에서(중구 중앙로 112번길 15)에서 펼쳐진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투 논단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거짓과 모르쇠여!

김 헌 태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정조사가 펼쳐지고 생중계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거짓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지성인들이자 지도층들의 수준이 그야말로 함량미달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최고 내지는 최상의 자리에 있는지 조차 의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모르게 많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해 정말 치매증상이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면 대기업 총수나 이화여대 교수나 의사나 서울대의대 교수나 모두를 그만 두어야 할 정도이다.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까지 모든 것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들이 거쳐 온 지난 일들을 이처럼 모르고 기억이 안 날 정도이면 거의 중증 상태로 모든 정상적인 일상을 그만두고 지금쯤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극단적인 상황이다. 묻는 말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내 책임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두 번 만났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등등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추악한 못된 결과만 남아 있지 그 과정에는 아무도 책임자가 없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스토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화여대는 아무나 부정입학을 원하면 멋대로 들어가는 대학인가 묻고 싶다. 국정조사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이처럼 비겁하고 멍청하며 기억상실증 환자 같은 사람들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니 얼마나 엉망진창인 업무추진과 독선, 사오정 같은 행각과 결과가 빚어졌는지는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불법 행각의 과정에서 빚어진 등장인물들의 추잡한 모습들로 국민 앞에 드러나지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다.

거짓말만 있지 진실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이석수 감찰관이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당당한 답변에서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찾았다. 거리낌 없는 답변은 곧 거짓이 아님을 국민들은 읽었다. 얼마나 대조적인 자세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지를 여실이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자 정의이다.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을 토대로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고 싶었지만 국정조사는 아예 약속이나 한 듯이 차수를 거듭할수록 거짓말과 모르쇠의 지루한 답변만 난무할 뿐 도대체가 정상성을 벗어나고 있다.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질책을 받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거짓과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자문의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기업체 총수가 되고 간부가 되었는지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거짓과 변명, 모르쇠로 일관하니 과연 이런 수준의 머리로 어떻게 책임자의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인지 모르쇠공화국인지 온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들이 넘쳐나며 국민들을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했기에 이처럼 고통을 받고 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울분을 토해야 한단 말인가. 지난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부터는 이념대결과 좌우대결,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준동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뜻있는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최순실을 감옥에 가두고 문고리 실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검을 왜 만들어 대통령에서부터 국정농단 세력들을 조사도 아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나 폭로전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분명 하나이다. 정의롭지 못한 국정농단 세력들의 추악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어디까지가 계속 이어지고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정입학 결론으로 입학취소가 결정됐는데도 부정입학을 주도한 책임자는 하나로 없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인 이화여대는 참으로 이상한 대학교가 아닐 수 없다. 부정입학은 있으나 이를 주도한 사람이 없다는 논리는 삼척동자나 소도 웃을 일이다. 어불성설치고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는가 싶다. 분명 특검에서는 거짓의 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거짓은 불의이며 죄악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반성은커녕 거짓과 사전모의, 술수와 위증교사 등등 갖은 추악한 일련의 과정들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농단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추잡한 검은 손으로 사악한 밑그림을 그리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추잡한 행각인가. 거짓이 거짓을 낳고 불의가 불의를 낳고 작당세력들이 끝까지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평화적인 촛불집회의 세계사에 남을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쌓은 이 땅의 성숙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과연 어떻게 보고 하는 짓인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가소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다.

편갈이 정치와 패거리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거듭나고자 해야 하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의 단맛에 젖어 이른바 발악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차제에 그동안 미진한 헌법과 법률이 있다면 국민들이 문제의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을 언제나 소환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고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상모리배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최순실 국정농단은 교훈적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국민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국민들은 최순실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관심도 없다. 최순실이가 강남에 살든 말든, 빌딩이 있던 없던, 성형수술을 하던 말든, 자식을 승마선수로 키우던 말든, 옷을 사던 말든, 가방을 사던 말든, 김밥이나 스끼야끼를 먹던 말든, 태블릿PC를 쓰던 말던, 정치인을 알던 대기업총수를 알던 말든, 선그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다니던 말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말든 국민들은 알바도 아니고 관심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며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강남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이 우롱당하고 국정이 농단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쳐도 좋다는 불의의 세력임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추악한 폭로내용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거짓과 변명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좀먹고 있음이 심히 걱정된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거짓과 진실은 불의와 정의의 이분법이다. 이런 추악한 일련의 모습 속에서 죄없는 우리 국민들만이 추운 겨울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눈물겹다.

기 고

결혼과 출산은 행복의 원천

김 태 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분과위원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 수준인 1.3으로 낮아진 이후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출산율이 낮아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2차 5개년 계획을 수행했으며, 올해부터 제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출산 터울을 줄여야 한다. 1990년에는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24.9세였으나 2015년에는 30.0세로 높아졌다(통계청, 2016). 그러자면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므로 정부와 사회는 개인이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 등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기혼여성들이 한 명의 자녀라도 더 낳게 하려면 출산, 양육은 물론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교육,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 책임을 증대해야 한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도 필요하다.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대상은 다양하다. 행복은 노력의 결과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결혼과 '부모됨'은 개인에게 원천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회다. 이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남녀가 함께 만드는 행복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행복을 누리려 노력해야 한다. 그 사례를 찾아보았다.

첫째, 결혼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결혼 전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면 결혼 후에는 공동의 행복이라는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결혼 전에 개인이 누렸던 행복을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 공동의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경제적인 지원이다. 과거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인구정책의 보편적 접근에 한발 다가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내의 약 3분의 2 정도를 유지하지만 우리는 통계청(2014)의 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47분)이 아내(3시간 28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남편들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여전히 극히 낮은 것은 사고의 전환이 없기 때문이다. 잉태를 함께 했으면 임신중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함께 출산(진통과 부모 됨)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양육도 함께 하는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는 적기가 있다. 2000년부터 20여 년간 낮은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결혼을 결심하도록 청년취업을 늘리고,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작은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노력한다면 결혼을 앞당겨 결혼 건수를 늘리고 조기출산과 출생아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행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태도가 형성돼야 한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설

비정규직까지 대물림되는 불평등사회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져 부와 권력은 물론 고용형태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연아씨는 '비정규직의 직업 이동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2005부터 2012년 사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녀와 그 부모 1460가정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비정규직일 때 자녀가 비정규직인 비율은 7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부모를 둔 자녀 10명중 8명은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으로 부모의 고용 형태가 자녀에게 세습된다는 조사가 나온 건 처음이다.

비정규직일수록 가계가 불안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가 적어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는 단순한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사회계층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직업적 지위의 세습을 확인했다며 "사회 이동의 기회가 더는 균등하지 않은 가운데, 빈곤의 세습 구조가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권력과 자본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이제는 고용에서까지 나타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4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도 우리사회의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 즉 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가난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만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 빈곤층의 40%는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 푸어다.

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비율은 0.4%에 불과해 역대 조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자녀들까지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고 있다.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신념과 노동의 의욕은 사라지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고조된다.

계층이동이 활발히 나타나는 사회가 돼야 사회가 활력이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뿐 아니라 사회불안도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는 성장주의 경제발전론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사회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조세제도를 하루 빨리 손질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의사회 구현 노력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며 노력과 계층 상승의 문제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지난 8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계 소비 및 투자'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 상승의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응답자의 20%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고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단 6.7%에 그쳤다.

더욱이 10명 중 3명(29.5%)은 로또에 당첨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인식하는 등 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불안감도 커졌다. 10명 중 7명이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불안감(매우 불안하다 25%, 약간 불안한 편 46.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경제적 불안을 겪는 소비자들이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여성(남성 68.1%, 여성 74.5%)과 40대(20대 69%, 30대 69.8%, 40대 75.6%, 50대 70.8%) 소비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컸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저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작년에 비해 올 한 해 동안 저축을 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저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난해 39.4%에서 올해 47.5%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저축을 통해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가계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이 시급하다.

오늘의 소사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 회 장 김성구 | 편집국장 한대수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더나은 희망으로
다함께 행복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어주는
따뜻한 나눔
잠재된 가능성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KT&G가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나눔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에 행복을 더해갑니다
상상에 답하다 KT&G